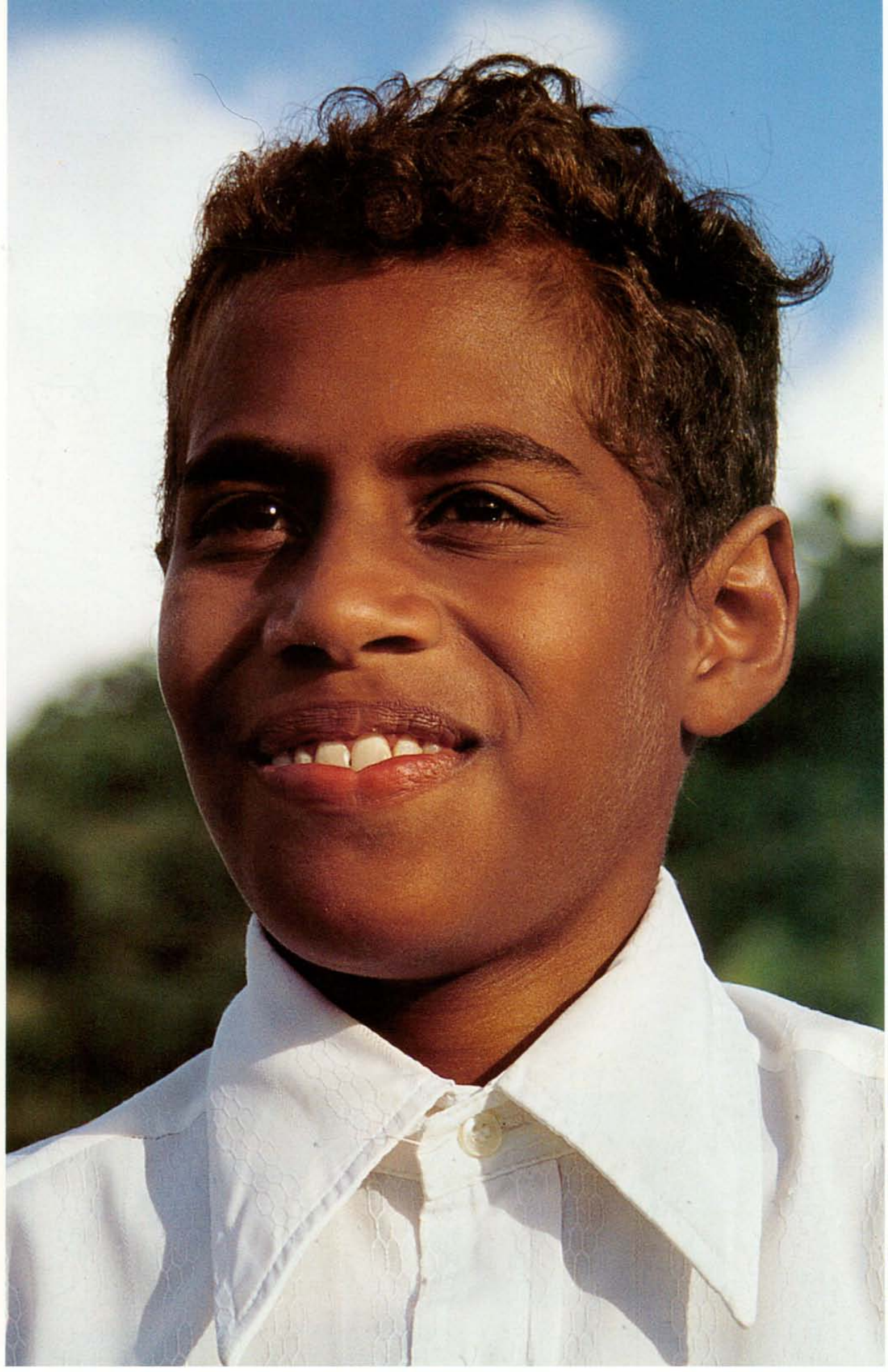


리아호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별채부락: 친구들 · 1999년 8월호



리야호나



표지
 (앞 표지) 복음의 빛이 뉴칼레도니아의 윌리암 베알로의 눈에서 밝게 빛나고 있다. (뒤 표지) 뉴 칼레도니아의 말일성도들은 서로 다른 여러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하나이다. 32쪽의 '빛의 성들' 참조(사진 촬영: 알 발 존슨)

친구들의 표지
 그림: 로버트 티 배렛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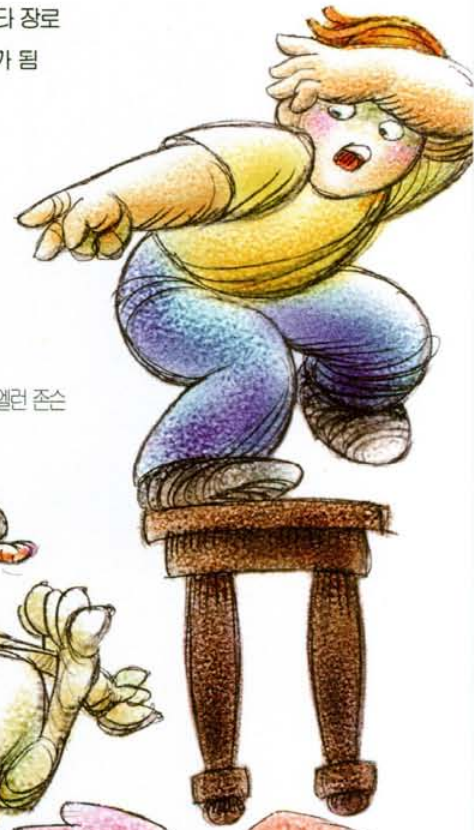
- 2 대관장단 메시지: 잃어버린 지평선 제임스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 14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 16 더 높은 울법 래리 이 달
- 25 방문 교육 메시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 32 빛의 성들 알 발 존슨
- 44 가정의 밤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폴 제이 랜즈

청소년란

- 7 물론 메시지: 개인적으로 적용함
- 8 중인이 되어 새년 디 젠슨
- 10 선인장 청소 세너 게즈네비
- 26 말일성도의 목소리: 봉사하도록 부름받음
- 48 심리를 동행하라 리사 엠 지 크로켓

친구들(별책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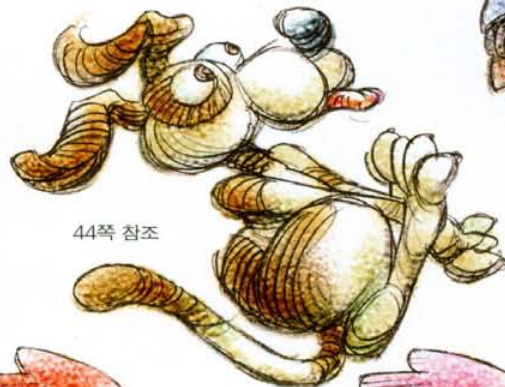
- 2 친구가 친구에게: 칠십인 클라우디오 알 엠 코스타 장르
- 5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함: 가족에게 선교사가 됨
 엘레인 크리스티나 파딜라 슬루자르스키
- 6 이야기: 접견 리사 에이치 퍼닐리아스
- 8 성전 준비 게임 말린 토마스
- 1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네가 선택해"
 칼먼 드 헤르만데스
- 12 함께 나누는 시간: 나는 성약을 지킬 수 있다
 시드니 에스 레이놀즈
- 14 마이클에게 침례를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엘런 존슨



2쪽 참조



10쪽 참조



44쪽 참조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입니다.

대판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십이사도 위원회: 보이드 케이 페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블라드, 조셉 비 퀵스틴,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말린 케이 켈슨

고문: 케이 이 켈슨, 존 엠 매드슨

교파 과정부 관리자:

관리 책임자: 로날드 엘 나이튼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톰니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편집 스태프: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관리 편집인 보조: 알 발 존슨

부편집인: 데이비드 미첼

편집 보조: 제니퍼 그린우드

편집/제작 부장: 베스 테일러

제작 보조: 코니 세익스피어

디자인 스태프:

잡지 그래픽 부장: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맨 캄펜

선임 디자이너: 새리 쿡

디자이너: 태드 알 피터슨

제작 부장: 제인 앨 피터스

생산: 테지널드 케이 크리스텐슨, 토마스 에스 그로버그, 테 니즈 커비, 제이슨 엠 엠포드, 디나 엘 쇼르센

구독 담당 스태프:

책임자: 케이 더블류 브릭스

배부 부장: 크리스 크리스텐슨

부장: 조이스 헨슨

통 권: 제401호, 제36권, 제8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1999년 8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한상의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삼일 인쇄 주식회사 김현수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1,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27,0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5,4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37,2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워드/지부의 변경된 주소를 배부 센터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International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불가리아어, 세부어, 중국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하티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키리바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량함)

©1999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August 1999 vol.36 No.8. LIAHONA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4.00.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Credit card



경전을 기쁘게 읽음

저는 리아호나(포르투갈어 판) 1998년 5월호를 받고 "우리는 경전에서 무엇을 상고해야 할까요?" 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경전을 기쁘게 읽고 제 영을 먹어야겠다는 강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전을 기쁘게 읽으면서 복음에 대한 제 사랑도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 간증도 커졌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엘사 소토,
브라질 에스 파울로 산토 아마로 스테이크,
인디아노폴리스 워드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잡지 구독권을 선물로 줌

매달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를 읽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을 살찌우게 하는 매우 보람 있는 방법입니다. 리아호나는 교회 회원이든 아니든 모두에게 훌륭한 잡지이며, 리아호나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가족은 다른 회원들에게 이 잡지를 구독하도록 권유하며 잡지의 구독권을 사서 다른 가족이나 친구에게 선물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들도 잡지를 읽고 영적으로 고양되는 것을 경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잡지

는 37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해집니다.

우리를 포함한 미네소타의 스페인어 제1지부의 회원들은 우리 지역에 작은 성전이 세워질 것을 알고 매우 행복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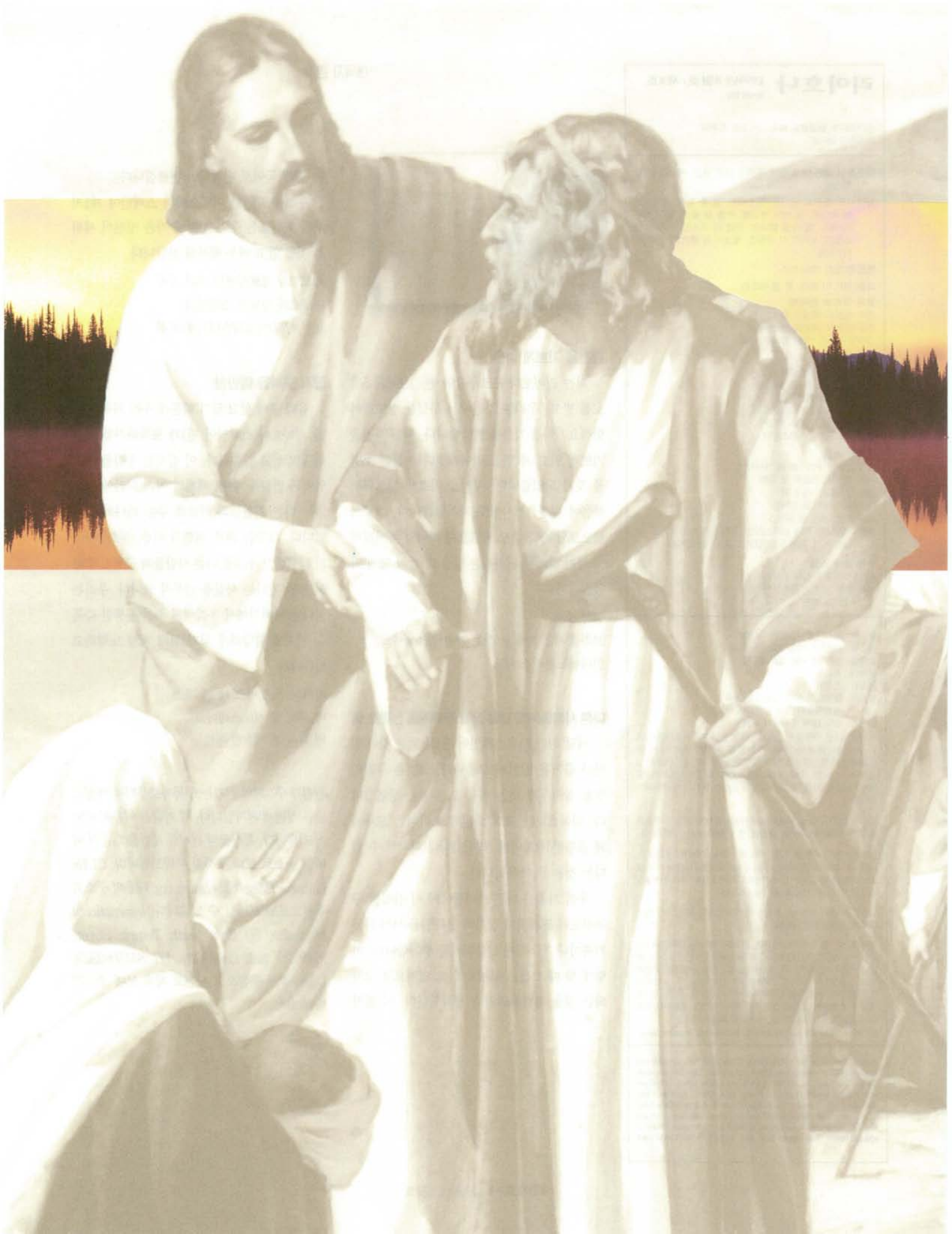
페드로와 애드리애너 피너 가족,
미네소타 아노카 스테이크
트윈 시티스(스페인어) 제1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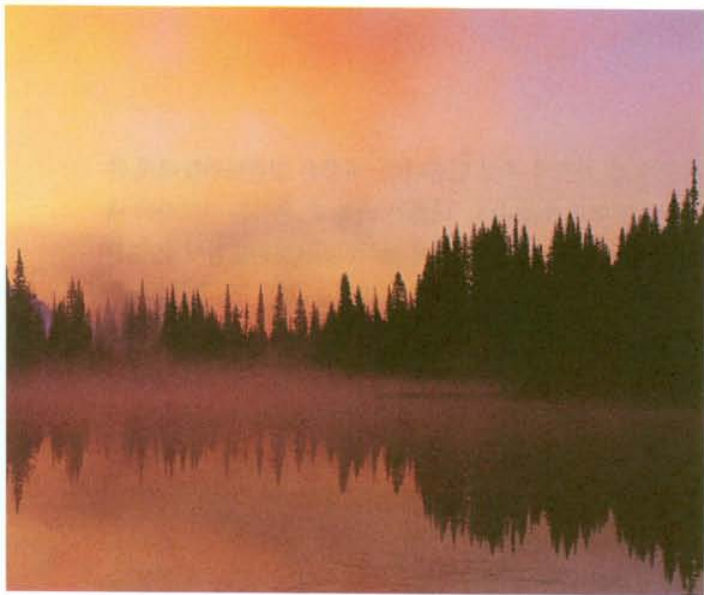
잡지 도착을 열망함

유타 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매달 리아호나(스페인어 판)가 도착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 잡지는 우리를 우리 언어와 연결해 주며, 세계의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다른 회원들과 연결해 주는 하나의 고리입니다. 그것은 피부 색깔과 인종, 문화, 언어가 다르다고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짓게 해서 안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훌륭한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티나 곤즈 에스 데 펜 테스
비 와이 유 제6 스테이크,
비 와이 유 제102 워드

편집자 주: 위의 편지는 구독자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첫번째 편지입니다. 새 기술을 이용하게 되어 기쁩니다. 독자들의 편지와 제언을 다음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CUR-Liahona-IMag@ldschurch.org. 다음의 주소로 우편으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Magazin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Floor 25, Salt Lake City, UT 84150-3223, USA. 정규 우편으로 사진도 계속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지평선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몇 년 전에 인기 있던 소설 가운데 잃어버린 지평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온 세계의 성도들에게 참된 주님의 교

저는 이 사업이 신성하며 우리의
구속주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실재하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전에 잃어버린
지평선을 찾고 구할 때,
우리의 지속적인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회 회원들에게는 “잃어버린 지평선”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이는 것에 국한하지 말고 시야를 보다 넓히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로시터 레이몬드는, 지평선이란 자신의 시야의 한계에 불과할 뿐이며, 불행하게도 작은 골짜기를 둘러싸고 있는 언덕의 한 자락만 보고 거기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지평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제 친구의 아들 중 하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그의 다른 아들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 친구는 큰 신문사의 신문 배달 소년으로 화려한 경력을 쌓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마침내 그 신문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철도 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역경을 통해 얻는 축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아주 진지하게 “자네 아들들도 그만한 나이의 때의 자네만큼 교육을 잘 받았는지 모르겠네.” 하고 말했습니다.

리야호나

저는 사랑과 정신적인 도움말고는 아들들이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은 부친이 계셨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1시간당 25센트라는 거금을 받고 기계에서 나온 뜨거운 깡통을 손으로 잡고 뚜껑을 닫는 통조림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통해 여러 가지 일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깡통에서 나오는 습기와 열에 손의 살갓이 벗겨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는 매일 16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자전거로 출퇴근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훌륭한 가족 가운데 알렉산더 알 커티스 형제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솔트레이크시티의 슈거하우스 지역에서 난방용 석탄 판매업을 했습니다. 그 집안에서는 여러 명의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 선교부장, 십이사도의 지역 대표, 성전장 그리고 총관리 역원이 나왔습니다. 그 후손 중 한 분인 에이 레이 커티스 형제님은 그의 성공에 가장 큰 힘이 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어린 시절 부친께서 자신의 손에 들려 준 석탄 파는 삽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서 자기를 잃어버린다면 그 것에는 몇 가지 유익함이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곤궁에 빠진 시기야말로 얻는 것이 가장 많은 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성직자 헨리 워드 비처의 다음과 같은 말씀에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하기보다는 냉철하게 만들고, 애석한 존재로 만들기보다는 지혜롭게 만들며, 절망시키기 보다는 그 어둠으로 인해 더욱 밝은 날이 있듯이 우리를 재충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는 약하지만 다른 하나는 강함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거미줄은 그 위에 어떤 무게도 실리지 않을 때, 매우 든든한 전선 못지 않게 양호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우리는 솔트레이크 성전 내의 곳곳에 잘 나타나 있는 훌륭한 장인의 솜씨에 놀라면서, 혹시 우리 세대가 잃어버린 지평선 중 하나가 개인적으로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훌륭한 권고를 했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빌립보서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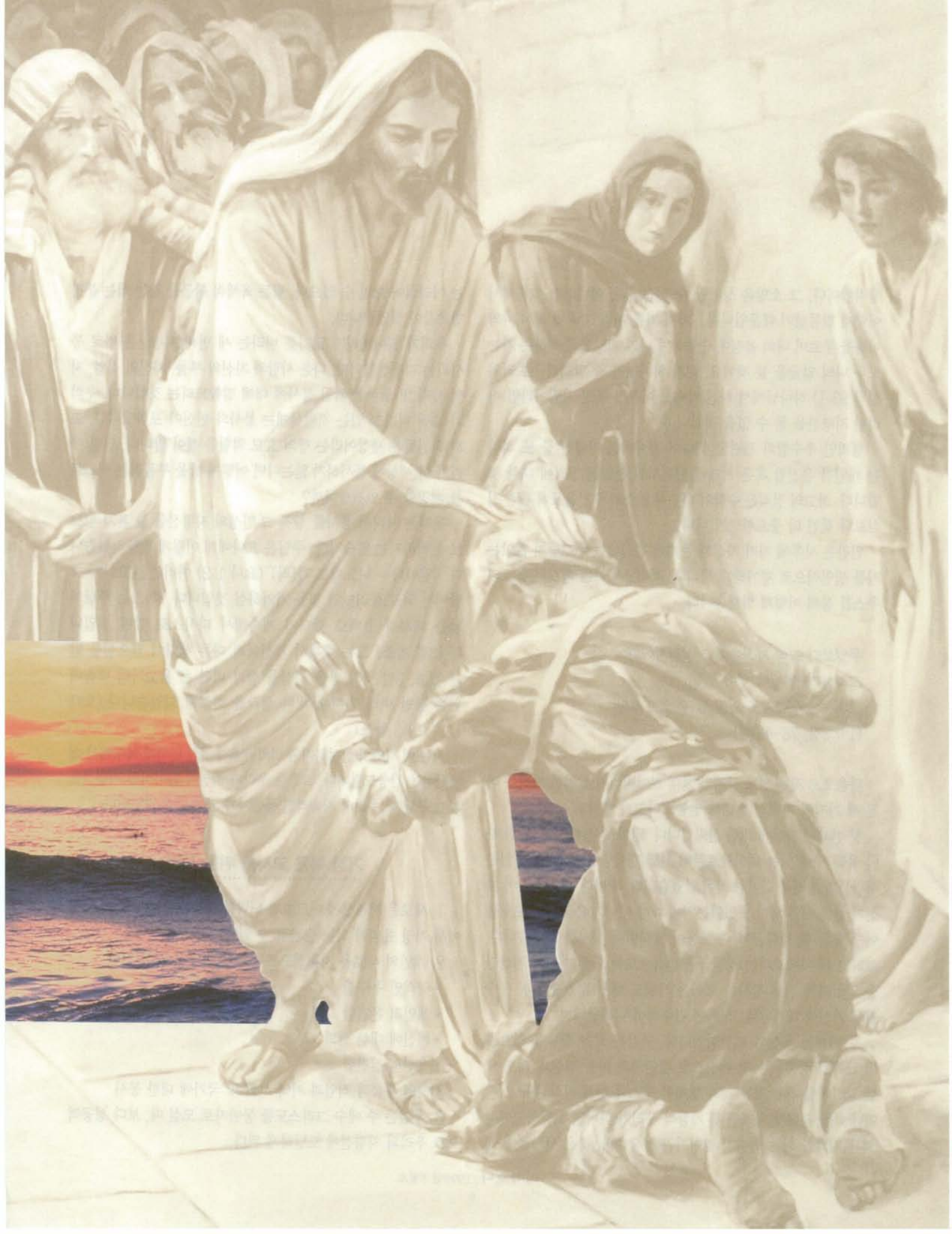
우리가 “제일 좋은 길”을 따라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다음

두 성구가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쓴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린도전서 12:31) 모로나이는 이더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은사로써 하나님께서는 더욱 복된 길을 예비하셨으니”(이더서 12:11) 사람들은 피에타(역주 :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슬퍼하는 마리아상)의 몸통 부분에 그 정교하고 탁월한 예술품을 응시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플로렌스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작”이라는 말을 새겨 넣었다고 해서 그러한 미켈란젤로의 자만에 화를 내진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내부에 긍정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지평선 중의 하나가 바로 영적인 우수함입니다. 저는 이 훌륭한 교회의 모든 회원에게는 구세주의 얼굴을 뵈고 싶은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세 번째 지평선은 바로 봉사라는 지평선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의 부름, 자신의 직업, 지역 사회 및 조국을 위한 봉사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생각합니다. 그 소망은 성취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교리와 성약 93:1)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지평선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우수함과 관련된 하나의 잃어버린 지평선 중 또 하나는 개인적 온전함 혹은 거래에 있어서의 분명한 정직에 대한 것입니다. 최고의 정직은 수학의 대수나 원소의 주기율표에 관한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사후에 자기 자신의 존재에 진실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필연적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셰익스피어는 햄릿의 폴로니우스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대 자신에게 진실할지이다
그리하면 밤 뒤에 낮이 오듯,
그대는 누구에게도 거짓 될 수 없으리라
(1막 3장, 78~80행)

다음으로 저는 성도 각자가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다른 세 가지의 지평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얼마 전 십이사도 중 한 분이 유타 주에 있는 대학들로부터 특별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이 장학금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두들 아주 힘들 때 장학금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돈 자체보다는 장학금을 받음으로써 학생 자신이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에 감사를 표하는 사람도 매우 많았습니다. 우수함은 자신에 대해 갖는 신뢰에 편승하여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건전함입니다. 인간은 체육 활동을 함으로써 근육이 강해지는 것 이상으로 결단력과 자율 정신과 태도 또한 강건해집니다. 저는 저의 형제인 구스와 함께 미식 축구 시합이나 육상 훈련에 참가한 후 가끔씩 우리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8킬로미터쯤 되는 집까지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눈에

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으나, 힘든 육체적 활동을 하는 데는 분명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세 번째 지평선은 바로 봉사라는 지평선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의 부름, 자신의 직업, 지역 사회 및 조국을 위한 봉사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넓혀 나가고 있는 지평선에는 봉사와 헌신이 포함됩니다. 교회 회원들은 세상이라는 빵의 효모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봉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빵을 부풀리는 이스트를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봉사를 할지 그 인생의 지평선을 늘 혼자 힘으로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요나 1:2) 여러분은 요나가 그 말에서 뒤로 물러났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즉 그는 주님의 낫을 피하려 옹바로 갔다가 계속해서 다시스로 갔던 것입니다.(3절 참조) 그는 주께서 자신에게 다른 생각이 있으심을 알게 됐고, 3일 낮과 밤을 자신을 삼켜 버린 큰 물고기의 뱃속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요나 1:17~3:3 참조)

저는 이 사업이 신성하며 우리의 구속주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실재하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전에 잃어버린 지평선을 찾고 구할 때 우리의 지속적인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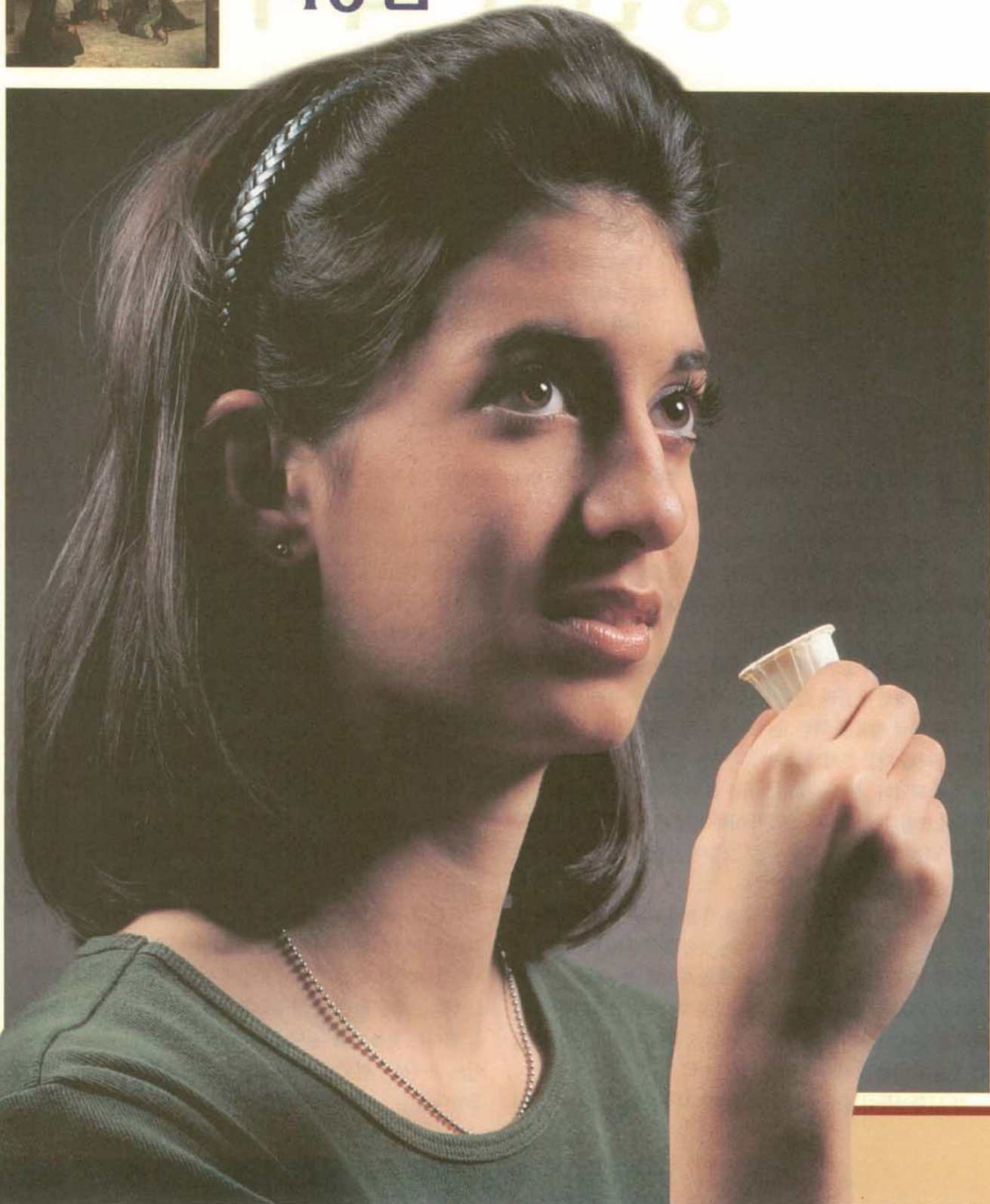
1. 새로운 지평선에 이르고자 노력하고 분투할 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유익이 되는 순간일 수 있다.
2. 개인의 새로운 지평선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영적인 우수함
 - 개인적 온전함
 - 자신에 대한 신뢰
 - 육신의 건전함
 - 타인 부름과 직업과 지역 사회 및 국가에 대한 봉사
3.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동반자로 모실 때, 보다 성공적으로 우리의 지평선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메시지

개인적으로 적용함

구세주께서 하신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생각한다.
(교리와 성약 19:16-17 참조)



증인이 되어

새년 디 젠슨

나는 그 말을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이 외웠다.
지금 그 말은 단순히 말 이상의 의미를 띠고 있다.
나는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행해야 했다.

나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주는 경험을 하기 전에 청녀 주제 성구를 수백만 번도 더 되뇌었을 것이다.

청녀 개회 모임에서 나는 대개 그 주제 성구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웠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던 어느 특별한 날에 그 영감 어린 말들이 내 마음속에 되살아났다.

선생님은 우리 웅변반에 그룹 숙제를 내주셨다. 각 그룹은 연극에서 한 장면을 골라 반에서 발표해야 했다. 우리는 그 다음 4일 동안 연극 발표를 위한 준비를 했는데, 남학생 한 그룹이 도덕성 문제를 다룬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장면을 선택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선생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을 때 우리 중 많은 학생이 놀랐다. 선생님은 그것이 아주 유명한 연극이라고 주장하셨고 “예술적 표현”을 위해서 그 그룹이 그것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발표 당일 우리 선생님은 다시 그 장면이 되는 연극에 대해 토론하셨고 그것이 불쾌할 수도 있다는 것에 동의하셨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곳에 있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면 누구라도 교실을 나가도 됩니다.” 라고 하셨다. 장난으로 반 친구들 중 절반이 일어서서 걸어 나가는 시늉을 했다. 일찍 점심을 먹으러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 남학생들이 발표를 시작했을 때 나는 조금 초조해지기 시

작했다. 처음에는 반 친구 몇 명이 얼굴을 붉히며 거북하게 웃었으나 장면이 진행됨에 따라 사람들은 긴장을 풀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도 교실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나는 함께 나가자는 신호를 보내는 친구가 없는지 살피면서 몇 명의 말 일성도 친구들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런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나는 아무도 내 붉어진 뺨을 보지 못하도록 책상에 머리를 숙인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나는 마음이 아주 불편했으나 교실을 나가는 것이 두려웠다. 어쨌든 그것은 예술이다. 그렇지 않은가?

바로 그때 청녀 주제 성구가 내 마음속에 떠올랐다.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모사이사 18:9) 될 것이다. 즉시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 “어느 곳에서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있는 교실까지 포함한 모든 장소를 뜻했다.

나는 조용히 일어서서 교실을 나갔다. 그게 전부였다. 아무도 일어서서 나를 따라 나오지 않았다. 아무도 나의 용감한 행동에 박수를 쳐주지 않았다. 나의 모범에 의해 개종한 사람도 없었다. 그 다음 2주일 동안 반 친구들은 나를 놀려댔지만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내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나의 믿음을 굳게 지킨 것에 대해 기분이 좋았다. □



분께서는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으며,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분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머리 위에 축복을 주어 응답하실 것입니다.”(캐나다 마니토바 주 위니펙에서의 모임, 1998년 8월 4일)

간증

“논쟁하여 개종자를 얻는 경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개종자를 이 교회로 들어오게 하려면, 말하고 행할 때 모든 것에 대해 겸손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뉴욕 주 팔마이라 근처 요셉 스미스 일세 가족의 통나무집 헌납식, 1998년 3월 27일)

영감

“여러분 자신을 열고 주님의 영감을 받아들이십시오. 영의 속삭임을 들으십시오. 저는 [해롤드 비] 리 형제님이 저를 스테이크 부장으로 성별하셨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 분은 ‘밤의 적막 속에서 영의 속삭임을 들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되었으며, 주님께서 조용하게 말씀하셨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음성도 들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밤중에 어떤 생각이 문득 떠올랐는데, 그것은 예언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프로보 선교사 훈련원 영적인 말씀, 1998년 6월 26일)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이 교회의 모든 개종자에게는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 줄 사람이 필요하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개종자에게는 해야 할 일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노력은 사람을 발전시킵니다. 이 교회의 모든 개종자는 그들의 질문에 답해 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 분들에게 손을 내밀시다! 그들과 친구가 됩시다! 또한 친절합시다! 그들을 격려합시다! 그들의 신앙과 이러한 것에 대한 지식, 즉 주님의 사업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켜 줍시다!”(캐나다 마니토바 주 위니펙에서의 모임, 1998년 8월 4일) □



더 높은 율법

래리 이 달

산상 수훈에서
구세주께서는 율법의 참 뜻을
강조하셨습니다.

분쟁, 분노, 간음, 이혼, 욕정, 무례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적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고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옛사람들도 직면했던 문제들입니다.

중동에서 성역을 베푸실 동안 행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구세주께서는 미대륙의 "다른 양들"을 방문하셨을 때 다른 주제들과 함께 이런 문제들을 논의하셨습니다. 이 두 곳에서 주님께서서는 이 문제들에 대해 1000년도 훨씬 전에 시내 산에서 영적으로 미숙한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셨던 십계명과 모세의 율법을 배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림: 칼 하인리히 블로흐, 산상 수훈, 덴마크 힐러, 프레드릭스보호 국립 역사 박물관의 허락을 받아 게재함



선인장 청소

세너 게즈네비
사진 촬영: 글쓰이

새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앨버커키의 청소년들

아야! 여러분은 선인장 가시에 찔려 본 적이 있습니까? 초올려 선인장 조각들은 옷이며 살갓이며 가시가 꽃힐 수 있는 곳은 어디나 "공격"합니다.

뉴멕시코 주의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가시투성이 선인장을 떼어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뉴멕시코 앨버커키 성전이 건립될 부지를 청소하면서 특별한 실습을 가졌습니다. 어느 더운 토요일 아침 네 개의 스테이크에서 온 청소년들이 삽과 갈퀴와 장갑을 준비하여 쑥이며 쓰레기 더미, 초올려 선인장을 치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잡초를 베고 땅을 고른 덕분에 성전 기공식에 오는 사람들이 마음놓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다섯 살 난 로빈 샘슨은 "힘들었어요, 하지만 성전을 갖는 일이니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합니다.

앨버커키 시가 성전 건립 장소로 승인 받기 전, 성전 공사 책임자가 시 관리들에게 그 계획서를 제출할 때 부딪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전 건축자들을 위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청소는 앨버커키의 청소년들이 성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의 일부일 뿐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생활이 깨끗한가를 확인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선인장 가시와 줄무늬 뱀

양말에 달라붙는 가시와 가끔씩 나타나는 뱀과 도마뱀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앨버커키의 청소년들은 가시 선인장과 깨진 병들을 성전 부지에서 말끔히 청소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청소년들은 선인장을 뽑고 트럭에 쑥을 실으면서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이곳에 성전을 갖게 되어 너무나 행복해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라 생각



했었거든요.”라고 열두 살인 로잘린 캠벨이 말합니다.

열 일곱 살 난 엠버 쿼는 앨버커키 성전에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을 날을 고대하고 있고, 또 언젠가는 이곳에서 성전 결혼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는 게 매우 즐거우며 영을 느꼈어요.”라고 엠버는 말합니다.

로잘린과 엠버는 둘 다 전에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앨버커키의 청소년들에게는 성전에 여행할 기회가 1년에 한 번뿐이었으며 성전에 도착하는데도 최소한 8시간이 걸렸습니다.

“성전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했었어요.”라고 네일 피터슨이 말합니다. 열여섯 살인 네일은 이마의 땀을 닦으면서 힘들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돕는 것이 즐겁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청소년이 성전 기공식을 위해 성전 부지를 정리하는 일을 도왔다.

우리의 몸은 성전임

선인장 청소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 외에도 미셸 윌리엄스는 자기 지역에 성전을 갖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왜 성전 부지를 청소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하죠.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깨끗이 해야 한다는 뜻이죠.”라고 미셸은 말합니다.

로간 킹은 복음 선교사 부름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앨버커키 성전에 갈 수는 없겠지만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되는 것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가기 전에 우리 생활 속의 모든 선인장들을 말끔히 치워야 해요.”라고 그는 말합니다.

장막 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가족 역사를 탐구하는 것도 앨버커키의 청소년들이 성전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머지않아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 성전을 갖게 될 것을 알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가족 역사 작성에 흥미를 갖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앨버커키 가족 역사 센터 선교사인 윌 콕스 자매와 햇필드 자매는 성전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지역의 청소년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계보에 커다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열일곱 살의 새라 새고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며 침례를 자주 행할 수 있도록 성전이 빨리 세워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은 자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으므로





위쪽: 한 건축가가 그린 뉴멕시코 앨버커키 성전의 그림.

삼입 그림: 열두 살인 로잘리 캠벨은 말한다.

“이곳에 성전을 갖게 되어 너무나 행복해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이 일이 올바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한 발자국 다가감

새라는 자신이 성전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성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고등학교의 같은 반 친구들에게도 성전 사업에 대한 간증을 지혜롭게 전합니다.

새라 혼자서 선교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교회 회원들도 성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성전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더 많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라고 열네 살의 리사 윌리스가 말합니다. 리사도 친구들에게 성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사람들이 성전에 대해 물어 본다는 것이죠.”라고 리사는 말합니다.

앨버커키의 복음 선교사들 역시 열심히 청소에 임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이 지역의 회원들은 성전이 앨버커키의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축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방문하던 중 어느 집 앞에 멈추었는데 한 여인이 문을 열고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당신네들이 성전을 짓는다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캘리포니아에서 온 모이어 장로가 말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높은 산 언덕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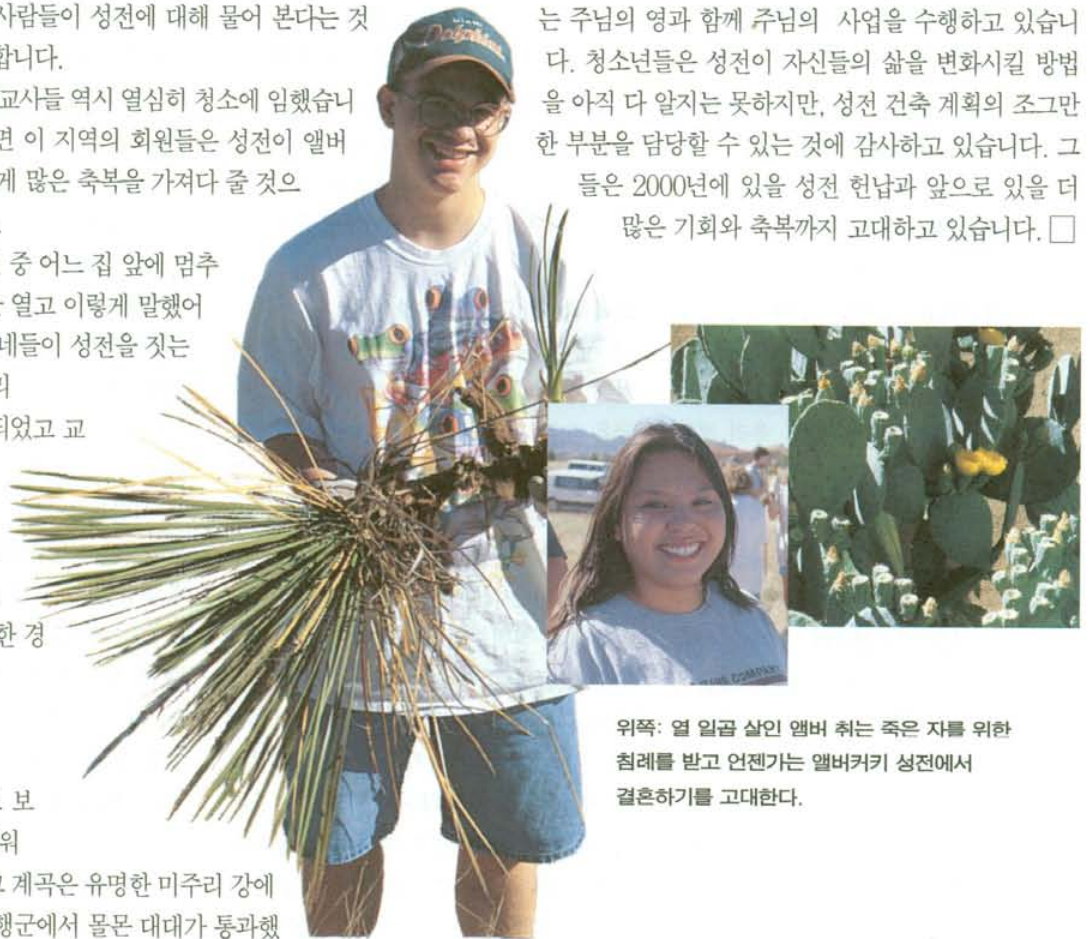
성전은 먼 곳에서도 보일 수 있는 계곡에 세워질 것입니다. 사실상 그 계곡은 유명한 미주리 강에서 캘리포니아까지의 행군에서 물론 대대가 통과했

던 바로 그 곳입니다.

기공식에는 청소에 참여했던 많은 청남 청년들이 청소년 합창단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높은 산 언덕 위”(찬송가, 2장)의 노래 소리가 성전 부지 헌납을 보러 모여든 수천 명의 사람의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우리 성전 건축을 축하하러 함께 모였어요. 저는 이것이 옳은 일이며 성전이 세워질 그 땅이 거룩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우리의 합창이 어떻게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영이 거기에 계심을 알고 있었어요.”라고 열여섯 난 타일러 린세이가 말합니다.

영이 거기에 계십니다. 봉사의 영, 선교 사업의 영, 사랑의 영을 앨버커키에서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선인장을 뽑은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하던, 앨버커키의 청소년들은 그들을 돕는 주님의 영과 함께 주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성전이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킬 방법을 아직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성전 건축 계획의 조그만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00년에 있을 성전 헌납과 앞으로 있을 더 많은 기회와 축복까지 고대하고 있습니다. □



위쪽: 열 일곱 살인 엠버 취는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고 언젠가는 앨버커키 성전에서 결혼하기를 고대한다.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통찰력과 권고의 말씀



선한 이웃이 됩

“[주님은] 우리가 선한 이웃, 즉 모든 언행에서 다음의 황금률을 따르는 기독교인이 되길 원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7:12; 니파이삼서 14:12)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선한 특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니면서 다른 교회를 헐뜯지 않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방법으로 전도하고 가르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수드베리에서의 모임, 1998년 8월 5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주님은 이 교회 회원인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그분은 우리가 말일성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배운 삶의 양식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지상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완전하신 분이셨고, 자신의 아버지를 떠나 자신을 낮추고 지상으로 강림하셔서 팔레스타인의 먼지 나는 길을 걸으셨으며, 위대한 속죄의 행위로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축복을 안겨 주었으니, 구원과 부활의 축복, 그리고 우리가 노력만 한다면 승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세상의 구속주의 위대

한 모범이 놓여 있으며, 우리는 그분의 삶과 교훈과 가르침을 따르고자 노력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성장과 기회와 승영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분이 그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종인 우리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구속주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수드베리에서의 모임, 1998년 8월 5일)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언이 성취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기입니다. 예전에는 지금 같은 시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적으로도 매우 많아져서 1000만 명이 넘는 대가족이 160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언론은 우리에게 정직하고 관대하며 정당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서 훌륭한 평판을 듣고 있습니다. ... 지금은 살아가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또한 이 교회의 회원이 되기도 좋은 시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젊은이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앞날은 대단히 밝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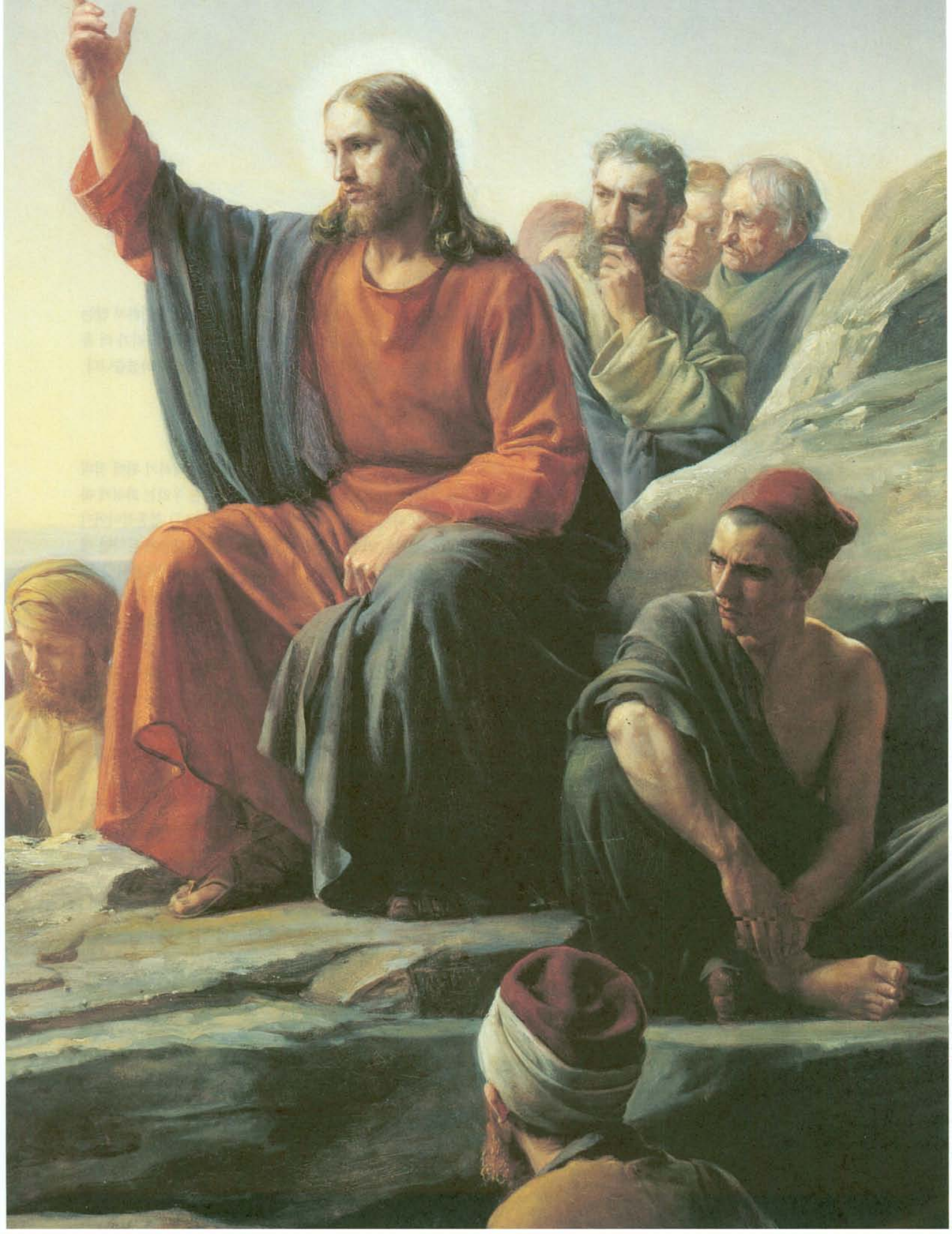
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저는 추후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장을 거듭해 나갈 것이며, 하늘 아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해밀턴에서의 모임, 1998년 8월 8일)

정결한 생각

“저는 여러분께 정결한 생각을 간직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들에 대해 정결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천박한 생각에서 벗어나 강건하게 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한 것에서 초연하십시오. 그러한 천박한 생각은 여러분을 파멸시킬 뿐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독약과 같습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삶을 완전히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에서 멀어지십시오. 정결한 생각을 하고 정결한 말을 하십시오.”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 영적인 말씀, 1998년 6월 26일)

겸손

“사람들은 제게 가장 좋아하는 성구가 무엇이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면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글쎄요,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이요, 네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리라." (교리와 성약 112:10)라는 구절을 좋아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교만을 부릴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자만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기심이 깃들일 여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



살인과 분노

(마태복음 5:21~24; 니파이삼서 12:21~24)

시내 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살인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새 율법은 “형제에게 노하는”(니파이삼서 12:22) 것조차 금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영어 성경)에 있는 “이유 없이”라는 수식어가 물론경이나 요셉 스미스 역에는 없다는 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마태복음 5:22 참조) 높은 율법 하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든 노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노하도록 내버려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한 말을 하거나 불친절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행위, 특히 희랍어와 아람어로 경멸 또는 조롱이란 뜻의 미련한 놀이나 라가라는 말의 사용을 조심하도록 경고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다른 표현으로 더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들을 화가 나서 했거나 농담으로 했거나 간에 그러한 행위는 영혼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복음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관련 있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히”고 “지옥 불에 던져”질 범죄자에게 영적인 해를 입히고 있습니다.(니파이삼서 12:22 참조) 이 경우의 공회는 아마 예루살렘의 산헤드린과 비슷한 교회 선도 평의회를 일컫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앞에 나오거나 혹은 나아오려 할 때 형제가 너희를 [어떤 것이든, 어느 정도든] 원망할 만한 일이 있으리라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에게로 가서 형제와 더불어 화목한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다.”(니파이삼서 12:23~24)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께 나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살이 조사해 보라고 하십니다. 정도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냈거나 경멸했던 죄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든 안 하든 간에 그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며 화해한다면, 그것이 곧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길을 준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화해하려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결코 “마음을 다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되면 우

리를 영접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은 사라지게 됩니다.

구세주의 새로운 율법이 요구하는 바에 비하면 살인하지 않는 것은 쉬운 규범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더 훌륭한 인격을 개발하려 할 때는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적대하는 자와 ... 급히 화해하라”

(마태복음 5:25~26; 니파이삼서 12:25~26)

이 구절은 종종 다툼이나 소송, 또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 적대자와 화해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양순하며”(야고보서 3:17) 협동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의 대의를 이루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세상이 주는 피해와 불공평도 견뎌야 합니다.(베드로전서 2:12~23; 3:13~17; 4:12~19 참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류의 평화 공존을 이룬다는 구실로 우리가 진리와 의로운 목적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적인 사탄이 우리를 악용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를 가두고(니파이삼서 12:25 참조) 자기처럼 비참하게 만드는 것(니파이삼서 2:27 참조)입니다. 이 적과 급히 “화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의 손아귀에 붙잡히지 않을까요?

또 하나의 화해의 의미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 결정해야 할 것은 다름아니라 적대자와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입니다. 그 결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의 간계에 휘말릴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야고보서 4:7)한다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야고보서 4:7 참조)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물론 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갖 마귀의 간사와 교활과 간계를 파하”(힐라맨서 3:29)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예언자의 말씀에 귀기울일 때, “암흑의 세력을 [우리] 앞에서 몰으시”(교리와 성약 21:6)겠다고 단언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영의 영감을 간구하고 영의 속삭임에 순종할 때, 우리는 “악령이나 악마의 교리나 인간이 만든 계명으로 말미암아 피임을 받지 않게”(교리와 성약 46:7)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경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영의 속삭임을 간구하고 따르며, 살아 계신 예언자의 말씀에 귀기울이는 것은 급히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적대자들과 겉으로 보기에는 무해한 것 같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악마든 인간이든 그들과 "화해"하기 위한 온전한 장비, 즉 그들을 항복시키기 위한 온전한 장비를 갖추게 될 수 있습니다.

간음 및 음욕을 품는 것

(마태복음 5:27~30; 니파이삼서 12:27~30)

간음은 항상 중죄였습니다. 그러나 새 율법에서 주님은 더 높은 표준, 즉 마음과 생각의 순결을 가르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저의 마음에 간음을 행한 것이다."(니

파이삼서 12:28) 주님의 영이 함께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간음의 행위나 음욕의 죄를 완전히 회개해야 합니다.

"음욕을 품는 것", 즉 "마음으로" 간음을 범한다는 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음욕은 흔히 "정도가 심한 무제한의 성적 욕망"으로 정의됩니다.(메리엄 웹스터 사전(1974년), "음욕") 경전에는 마음이 그 사람의 핵심, 즉 본질, 다시 말하면 그의 참된 의도 및 거짓 없는 소망과 관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잠언 23:7 참조) 만일 어떤 사람이 사실상 음욕을 품은 대상과 간음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간음한 사람입니다.

간음을 실제로 범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유혹 당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온통 부도덕한 자극물로 가득찬 세상에서 그러한 유혹은 언제든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모든 자극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의의 대의를
이루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세상이 주는 피해와 불공평도
견뎌 내야 합니다.(베드로전서
2:12~23; 3:13~17; 4:12~19
참조) 그러나 우리는 진리와
의로운 목적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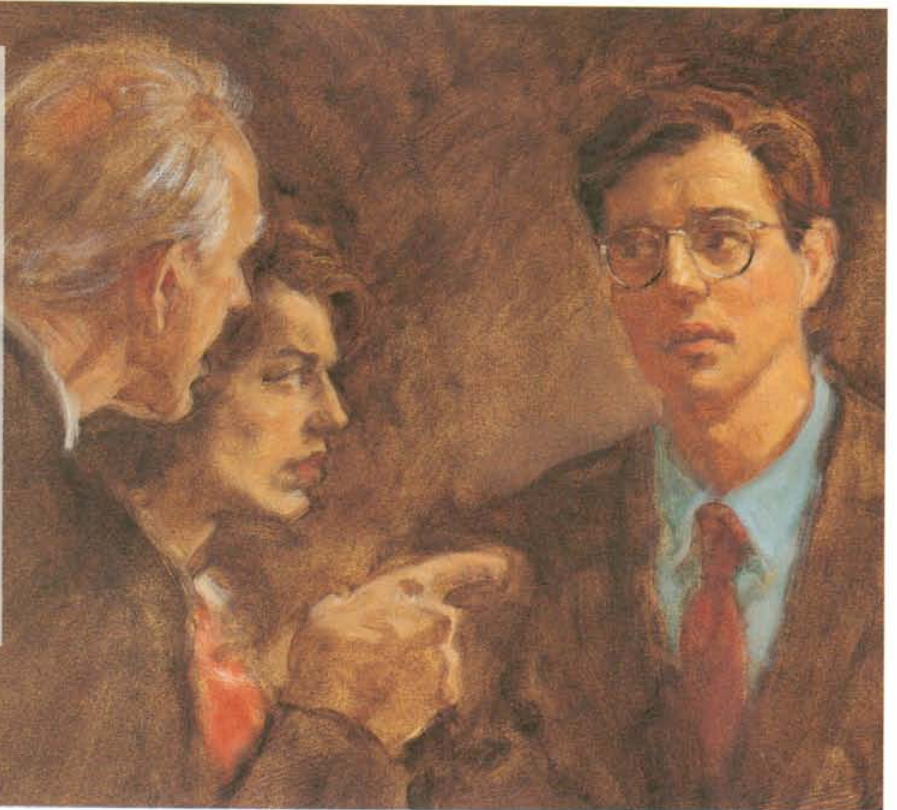


그림: 키스 리슨

물을 다 피할 수는 없다 해도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고 바꿀 수 있도록 도움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태로운 상황을 의식적으로 피하여 즉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부도덕한 생각을 계속하며 그 생각을 발전시키거나 음미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든지 찬송가나 노래를 불러 영을 고취시키든지 일부러 생각을 긍정적으로 전환시켜 머리에서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부도덕한 것들에 몰입하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본다면, 우리의 생각이 자신의 마음의 성향과 심지어 미래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맥스웰 맥츠 박사는 우리의 생각과 신체의 신경 체계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실험적인 임상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신경 체계에 있어 실제 경험과 생생하고 상세한 상상의 경험 사이에는 차이점이 없음을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생각을 통제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게”(니파이삼서 12:29)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 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악함과 세상의 음욕을 멀리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역, 마태복음 16:26 참조) 그렇게 함으로써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순결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

(마태복음 5:31~32; 니파이삼서 12:31~32)

예수님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는 자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니라.”(니파이삼서 12:3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공평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버림”을 받은 아내나 그녀와 결혼한 남자는 왜 간음의 죄로 다스려집니까? 그녀는 불

예 수님께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혼을 허락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높은 율법은 사람들의 상호 관계에서 겸손과 새로운 영을 갖도록 고무시키는 것입니다.



의한 남편의 죄 없는 희생물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오늘날 이 가르침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왜 교회 회원에게 성적인 죄 이외의 이유로도 이혼이 허락되며, 간음이라는 혐의가 없다 해도 성전에서 다시 결혼하는 것이 허락되니까?

이런 질문들에는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니파이인들에게 하신 이 말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거나 다시 확인해 주는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이나 현대 예언자들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하신 주석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공평성의 주제에 대해서는 마가의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마가는 바리새인들과 이혼에 대해 공개적인 논쟁을 한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에 가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자온대”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마가복음 10:10~12)

이 경우에 간음의 죄과는 다른 한쪽을 버린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것이지 버림받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님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진실을 알고자 했던 구세주의 제자들에게 그 분이 “집에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 어떤 다른 설명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세주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도움이 됩니다. 그들은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세의 율법에 허용된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도전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마태복음 19:8)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인들에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보다 더 낮은 표준이 주어졌다는 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인하여” 보다 낮은 표현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표준을 조절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이 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여러 단계의 영적인 발전을 거치도

록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인간들이 슬픈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의 현명치 못한 요구를 일시적으로 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두고 사무엘의 원리라고 칭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열방과 같이…왕을 원했습니다. 주님은 사무엘에게 왕을 가졌을 때의 필연적인 결과에 대해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경고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왕을 갖기를 고집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왕을 주어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리 되기를 원하셨지만 어떤 한계 내에서 그들의 소망대로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나쁜 경험은 어리석은 자들만이 계속하는 값비싼 교훈입니다.(사무엘상 8장 참조)

“예언자의 권고와는 반대로 세상을 모방하려고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거짓 가르침과 정책, 음악, 복장에 대한 개념을 좇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새로운 표준들이 우세해지다가 점차 몰락하는 상태가 되어 결국 많은 고통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겸손해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높은 율법을 배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제 표준이 점차로 낮아지는 동안 의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그런 표준을 강요함이 없이 반드시 올 좋은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가능한 한 가장 높은 개인의 표준대로 살아야 합니다.”(올해의 말씀, 1974년(1975년), 304~305쪽)

브르스 알 맥콩기 장로는 이혼의 주제에 이 원리를 적용했습니다. “이혼은 복음 계획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실제로는 항상 복음 표준과 일치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관련된 사람들의 영적인 건설성의 정도에 따라 이런 저런 이유로 이혼을 허락하십니다. …가장 완벽한 상황하에서는 성적인 죄가 연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혼은 허락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혼은 사회 법규에 따라 허락되며, 이혼한 사람은 높은 제도 하에서는 그러한 처신에 따르게 되는 부도덕이란 오점이 없으면 교회에서 다시 결혼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습니다.”(신약전서 교리 주해서, 3권(1966~1973), 1:547)

높은 율법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때에 따라 우리에게 더 낮은 표준인 “몽학선생” 율법을 줄 수 있습니다.(갈라디아서 3:24 참조) 그러나 몽학선생 율법을 엄격히 준수한다 해도 그것이 곧 목표는 아니며 승영하는 데 충분한 율법도 아닙니다.(모사이야서 3:13~17; 12:31~33; 13:28~35)

참조) 낮은 율법은 임시 조치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율법대로 살 준비를 하도록 돕기 위한 최소한의 표준입니다. 승영하게 될 모든 사람들은 회개와 순종을 통해 “혜의 왕국의 율법”을 소망하고 그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교리와 성약 88:22 참조)

특수한 상황과 관련된 이혼에 대해 솔직한 질문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전이 그 모든 질문에 대해 다 말하고 있지 않다 해도 길잡이가 없이 우리를 버려 둔 것은 아닙니다. 요셉 스미스는 “왕국의 자녀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계시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정부를 다스리는 원리이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1994년), 241쪽 참조)라고 가르쳤습니다. 권능을 부여받은 주님의 종들을 통해 그 계시가 옵니다. 그들은 교회 회원들의 현재의 필요사항에 적합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도록 인도 받습니다. 우리가 예언자들을 따를 때 주님께서는 “영원의 재물”(교리와 성약 78:18)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맹세할

(마태복음 5:33~37; 니파이삼서 12:33~37)

모세 시대에는 “거짓 맹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즉 맹세한 것을 부정해서도 지키지 않아서도 안 되었습니다. 맹세한 모든 약속은 주님께 대해 맹세한 것으로서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일부 사람들은 성급하고 어리석은 맹세를 하고 실행했습니다.

우리의 말을 보증하기 위해 맹세나 선서를 할 필요가 없는 더 좋은 방법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맹세하기보다는 우리가 한 말을 솔직하게 시인하거나 좋으면 예로, 싫으면 아니오라는 간단한 말로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해야 합니다. 제임스 이 탈메지 장로는 다음과 같은 주님의 영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덧붙이거나 모독적인 말을 하거나 맹세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말을 절제하고 간단 명료하게 하도록 강조하셨다.”(예수 그리스도(1978년), 238~239쪽)

하늘이나 땅이나 우리 머리를 부수적으로 사용하여 맹세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칼 하나라도 검거나 회개 하지 못”(니파이삼서 12:36)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가 통

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맹세는 그 이행에 대한 보장이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우리는 영감을 받지 않은 말로 그분에게 의무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무례한 행동에 대한 반응

(마태복음 5:38~42; 니파이삼서 12:38~42)

주님께서는 오래 전에 영적으로 미숙한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시었던 보복의 율법을 폐지시켰습니다.(출애굽기 21:23~25 참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출애굽기 21:24)를 요구하는 대신 우리는 다른 쪽 뺨을 돌려 대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주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기꺼이 십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꾸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든 모든 요구에 완전히 예속과 굴복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가르침을 얼마만큼 문자 그대로, 또 어떤 범위까지 적용해야 할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해치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자기 방어를 억제해야 할까요? 교리와 성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시 법률에 호소하여 구조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받는 불법적인 습격과 침해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방위함은 정당하다.”(교리와 성약 134:11)

우리는 구세주께서 새로운 조건을 적용시키는데 사용하신 각각의 예에 대해 유사한 질문을 제기하고 경전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해야 할 바를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그 답은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모로나에서 10:32)며, “주의 길에 임하는” 모든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신을 받아” 성신이 “너희가 행하여야 할 모두를 너희에게 보여 주시”(니파이에서 32:5) 때문입니다. 이 은혜로우신 약속은 “너희가 마음의 뜻을 다하며, 위선을 행하거나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참 마음으로...너희 주 곧 너희 구세주를 따르”(니파이에서 31:13)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함

(마태복음 5:43~47; 니파이삼서 12:43~45)

“기록되었으되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니파이삼서 12:43)라는 말씀은 분명 성경이나 물론경의 인용이 아닌

니다. 구세주께서는 어쩌면 사해 두루마리 같은 다른 기록들을 언급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사해 두루마리 안에 “모든 빛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모든 어둠의 자식들을 미워하며”(사해 두루마리(영어), 제3판(1987년), 지 베르메스, 62쪽)라는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기록된 곳이 어디든 간에 구세주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니파이삼서 12:45)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모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영의 아버지이지만 그분의 자녀가 되는 또 다른 차원을 여기에 암시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교리와 성약 76:24) 되는 것입니다. 속죄의 권세를 통해 다시 태어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승영한 가족에 속하는 자녀가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가 소

유한 모든 것을 받는 공동 상속자가 됩니다.(로마서 8:17; 교리와 성약 76:50~70; 84:36~38; 132:19~24 참조)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사랑, 곧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모로나이서 7:47)을 지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몸에 익힐 수 있을까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따르는 자에게”(모로나이서 7:48) 하나님의 영이 부여하는 은사입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따르는 자가 되는 길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선을 행하며 못된 일로 너희를 이용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니파이삼서 12:44)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열심히 노력하며 행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로 거듭 나서 타락한 육육의 모양이 의로운 것이 되며, 하나님께 속죄받아 그의 아들과 딸이 되”(모사이야서 27:25)도록 준비됩니다.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마음 가운데의 “큰 변화”(모사

구 세주께서는 우리의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거듭 나고 마음 가운데 “큰 변화”(모사이야서 5:2)를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 축복의 하나입니다.



이야서 5:2)와 관련된 축복의 하나입니다.

구세주의 권유

(마태복음 5:48: 니파이삼서 12:48)

산상 수훈의 이 부분을 끝맺으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옴으로써 옛 율법은 다 이루어졌으며 이제 새로운 질서, 즉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길잡이가 될 높은 율법이 있음을 되풀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과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과 니파이삼서 12장 48절에 나와 있는 두 말씀 사이에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에는 아버지만이 온전하신 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니파이삼서에는 구세주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구세주의 지상 생활 동안 마태복음의 내용이 주어졌고, 그

때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이므로 아직 해의 왕국에서 온전해지지 않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둘째, 마태복음에는 온전하라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니파이삼서에서는 “내가 이르거니와 …너희도 온전하(기를 바라노라).” (48절, 영문)라는 구절은 주님의 소망의 표현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과 구세주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에는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높은 율법대로 살라는 구세주의 권유를 받아들일 때, 다음과 같은 베냐민 왕의 권고는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위안을 갖게 해줍니다.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되 지혜롭게 순리대로 행하여야 하니, 사람이 제 힘에 겨웁게 행함이 마땅하지 아니함이라. 다시 이르노니, 사람이 상을 얻으려면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지라, 만사가 질서 안에서 행하여지게 하라.” (모사이야서 4:27) □

예수님은 옛 율법을 다 이루
시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
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지침이
되는 새로운 질서, 즉 높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판공: 미크로스, 예수, 신, 영감, 영감, 영감, 영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감사는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할 때 오만과 자만과 이기심이 가득 찬 생활을 하지 않으며 여러분에게 어울리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줄 감사의 영을 가지고 생활하게 됩니다.”(고든 비 힝클리의 가르침(1997년), 250쪽)

진심에서 우리는 감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축복을 깨닫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도와 줍니다.

감사로 인한 기적

3일 동안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지 않고 구세주와 함께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예수께서는 무리들을 굶긴 채 떠나 보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마태복음 15:33)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제자들도 무리가 먹을 떡이 없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께서는 얼마 되지 않지만 그들이 가진 것을 축사하셨으며(36절 참조) 뒤이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37절)

우리 모두는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습

니다. 우리의 시간이나 수단, 인내, 사랑의 감정조차 어찌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브리감 영 대관장의 태도를 본받고 우리의 고난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도움이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보다 향상시키려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생활 상태와 모든 체험이 유익합니다.”(교회 대관장들의 가르침: 브리감 영(1997년), 179쪽)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생활 속에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고 인내할 힘이 커집니다.

한 자매는 이혼한 후 부정적인 감정으로 힘겨워했습니다. 그 자매는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끝장이 났고 그와 더불어 많은 희망도 꿈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가족 옆에 앉아 있으면 자기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나 하고 생각하고는 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그녀는 자신의 축복사

의 축복문을 떠올렸습니다. “자매여, 그대가 받은 모든 축복에 감사할지이다.” 그리하여 그 자매는 진심으로 감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자매는 매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그녀의 영혼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쓰라린 감정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제 마음을 친절과 관용으로 채워 주었어요”라고 그 자매는 말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주님께서는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교리와 성약 59:21) 우리가 고백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고 계시하셨습니다. “만사” 안에는 건강, 가족, 친구,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아낌없이 주신 은혜 등 인생의 크고 작은 축복들이 포함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규칙적으로 우리의 축복을 되새기며 감사의 기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우리를 강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자”(교리와 성약 78:19)에게 주는 약속은 위대합니다. □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일정에 맞다면, 혹은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좋아한다면, 아니면 선교 사업이 장학금이나 이성 교제나 교육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복음 전도는 계명이지 단순한 제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주님과 그분의 예언자들은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봉 사 하 도 록

고 든 비 힝클리 대판장은 교회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여러분은 여러 가지 사명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자 선교 사업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약간 겁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갖고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가기 위해 준비하십시오. 기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도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놀랍고 훌륭한 방법으로 축복하시고 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업에 2년 간 완전히 몰입하라고 하는 것이 지나친 요구입니까?” (“성전에 관한 생각,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선교 사업”,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52쪽)

칠십인 회장단의 조 제이 크리스텐슨 장로도 역시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일정에 맞다면, 혹은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좋아한다면, 아니면 선교 사업이



맨 윗쪽: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몬드
맨 아래쪽: 사진 촬영: 제리 간즈; 그림: 로버트 티 배렛



부름 받음

장학금이나 이성 교제나 교육 계획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복음 전도는 계명이지만 단순한 제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주님과 그분의 예언자들은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구세주는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성도의 벗, 1977년 1월호, 41쪽)

다음 쪽에는 선교 사업에 관한 독자들의 간증과 경험담, 그리고 봉사의 특권에 대한 감사의 글이 실려 있다.



나의 명찰

글: 살리나스 아우구스토 산체스

나는 열네 살에 개종한 이래 늘 선교사로 나가 봉사하고 싶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봉사할 때 그들을 지켜보곤 했다. 그들은 옷차림이 단정했고 영적으로 준비가 잘되어 있었다. 그들의 명찰에는 교회의 이름과 함께 자신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선교사들은 각자 특징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고 똑같은 명찰을 달고 있었다.

나는 이윽고 스물한 살 때 우리 나라 페루 트루질로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선교사들이 한 사람씩 일어선 선교사 훈련원장으로부터 명찰을 받았던 그날 밤 일을 생생히 기억할 수 있다. 나는 성신을 느낄 수 있었고, 나의 심장은 기쁨으로 고동쳤다.

"아우구스토 산체스 장로님!"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나는 앞으로 2년 동안 주님의 봉사자임을 밝혀 줄 선교사 명찰을 받기 위해 벌떡 일어났다. 원장님이 상의 왼쪽 호주머니에 명찰을 달아 주고 나서 나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 주실 때 나는 울었다. 명찰이 무겁기 때문에, 아니 위대한 책임을 짊어졌기 때문에 왼쪽 어깨가 올라감을 느꼈다.

이제 나는 선교 지역에 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자신의 뜻이 아닌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의 대열 속에 끼여 있다는 것은 커다란 특권이 아닐 수 없다.

만일 내가 계속 합당하다면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이름을 나의 명찰뿐 아니라 나의 가슴과 얼굴에도 새겨 주시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순종과 사랑

글: 초이중랍

홍콩에서 선교 사업을 하던 중 어느 목요일 나는 구역 책임자로서 부름을 받아 새로운 임지로 옮겨 갔다. 그곳에는 구도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가르칠 구도자를 찾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다음날 나와 동반자 그리고 다른 장로 두 사람이 함께 막 저녁 식사를 하려할 때 전화가 걸려 왔다. 선교부장 보조가 선교부장이 요구하는 목표를 전달하려고 전화한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오는 일요일에 구도자 서너 명을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일요일은 불과 이틀 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수화기를 놓고 선교부장이 요구하는 목표를 다른 장로들에게 알려 주고 금식할 것을 제안했다. 장로들 세 사람은 모두 나의 제안을 지지했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냉장고에 넣어 두고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금식의 목적을 알리고 그분의 도움을 간구했다.

그리고 나서 아파트를 나와 전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날 저녁 별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토요일은 더욱 열심히 노력했고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의지했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해냈다. 하지만 구도자들이 그 다음날 일요일에 교회에 나올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했다.

일요일 모든 사람이 도착했을 때 구도자는 모두 일곱 명이었다. 그 일곱 명 가운데 여섯 명은 그로부터 한 달 내에 침례를 받았다.

이러한 기적을 보기까지는 순종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했다. 나는 경전이 가르쳐



주듯이,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교리와 성약 130:21)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1981년 무더운 여름 선교 사업을 행하는 중에 사랑의 중요성도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한복음 13:34)

그 해 여름 나는 경비원을 두고 있는 아파트가 많은 도시에서 봉사하게 되었다. 우리가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가 전도할 수 있도록 경비원들의 허락을 얻기란 매우 힘든 일이었다. 우리는 여러 번 시도해 보았지만 대개는 실패했다.

어느 날 오후 나와 동반자는 둘 다 그곳

에 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버스를 타고 그 곳으로 가는 도중 우리는 한 노파가 나무로 된 손수레를 힘겹게 밀고 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 손수레에는 무거운 짐이 실려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버스에서 내려 그 노파를 돕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버스 운전사는 고갯길이 몹시 가파르므로 차를 세워 주질 않았다. 버스가 정지하자 나와 동반자는 곧장 고갯길 아래로 뛰어내려 갔다. 가서 보니 짐은 정말 아주 무거웠다. 우리는 15분이나 걸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다.

경비원 서너 명이 우리가 하는 일을 지켜보았다. 우리가 아파트 건물 안으로 들어설 때 그들은 우리를 제지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켰다. 우리는 그날 오후에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 새로운 구도자 세 명을 찾아냈고 그중 한 사람은 후에 침례를 받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활은 순종과 사랑의 모범이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완전한 모범을 알게 된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주님께 충실하고 계명을 지키십시오.

글: 후안 카를로스 포르셀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후 나는 복음 선교사로서 주님을 대표해야겠다는 보다 강한 욕망을 느꼈다. 스코트 장로는 나의 어깨에 두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했다. “주님께 충실하고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장로님에게 영감을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커다란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1996년 3월 24일 아르헨티나 메르세데스에 있는 집을 떠나 레시스턴시아 선교부로 향했다.



어느 날 나와 동반자는 전도 하기 위해 오랫동안 걸었다. 이 지역에서 구도자가 우리와 한 모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지난 9개월 동안 침례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낙담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더 큰 목표를 세웠다.

걸어가고 있는 도중에 얼마 전에 만났었던 숙녀를 방문하라는 영감을 우리 두 사람은 동시에 느꼈다. 그런데 그녀의 집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영감에 의해서 그녀의 이웃집으로 끌려갔다. 그녀의 이웃은 우리가 전하는 말을 매우 관심 있게 귀담아들었다. 우리는 둘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셉 스미스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하는 동안 성신을 느꼈다.

잠시 후 나는 그녀에게 물문경 한 권을 건네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의 아버지는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분은 선교사님들의 교회 회원이셨죠. 아버지는 교회를 아주 적극적으로 다니시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이렇게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제 꿈에 나타나셔서 누군가가 저에게 책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책 속에서 내가 올바른 길을 찾을 것이니 절대로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죠. 이제 알고 보니 선교사님들이 바로 꿈속에서 저의 부친이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군요." 나는 참으로 놀랐다. 그리고 장막 양쪽에서 선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용기를 얻었다.

나는 선교 사업을 하면서 리차드 지스 코트 장로님께서 "주님께 충실하고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장로님께 영감을 주실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분의 감미로웠던 표정이 떠올랐다. 바로 이것이 선교 사업을 하는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다.

"고난, 여러분을 강건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글: 마르코 안토니오 파네스 스파노

어느 날 나는 *리아호나*(스페인어판)를 읽다가 내 마음을 사로잡는 구절을 발견했다. 그 구절은 "고난, 여러분을 강건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성도의 벗, 1993년 9월호, 33쪽)이다. 나는 역경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훗날 이 구절에서 인생의 고난에 맞서 전

진하는 힘을 발견하리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나와 동반자가 활동하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북선교부의 마을은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두 젊은이(선교사)를 험오스럽게 바라보는 다른 종교의 신자들로 가득했다. 우리는 수많은 집의 현관을 두드렸지만 성과는 별로 좋지 않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여름 날씨는 매우 더울(통상 섭씨 30도를 오르내림) 뿐만 아니라 습도도 매우 높고 바람이 거의 없다. 우리는 늘 자전거를 타고 이곳 저곳을 다녔다. 어느 날 날씨는 무덥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지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리아호나 / 1999년 8월호

게다가 비까지 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우리는 걸어서 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진흙이 신발에 달라붙어서 걷는 것이 마치 곡예사의 연기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역경으로 인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그때 리아호나에서 본 구절이 떠올랐다. 나는 동반자에게 “장로님, 어서 갑시다. 이런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기도를 드렸다. 그 결과 우리 두 사람은 우리가 여태까지 찾을 수 없었던 옛 구도자를 방문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는 그 집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그 부인은 집에 없었다. 그러나 애니타라고 하는 다른 부인이 있었다. 그녀는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주 유쾌한 듯이 보였다. 그래서 우리는 몰몬경 한 권을 그녀에게 주고 돌아왔다. 그녀는 몰몬경을 읽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아주 행복했다. 참으로 성신이 우리를 그녀에게 인도해 주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튿날 다시 그녀의 집으로 갔다. 애니타는 우리가 가르친 모든 복음 원리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네 번째 토론을 가르칠 시간이 되었을 때 그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기는 침례 받고 싶지 않으며 우리가 자기 집에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나와 나의 동반자는 크게 실망했다. 그러나 우리는 곧 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애니타에게 기도하여 침례를 받아야 할지 받지 말아야 할지 주님께 간구해 볼 것을 권유했다. 우리는 애니타가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는 그 다음날 다시 그녀의 집으로 갔다. 애니타는 정말로 확실한 응답을 받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안으로 충만해 있

었다. 그로부터 열흘 후, 애니타는 침례를 받았다. 그녀는 몰몬경 읽기를 끝냈고 몰몬경에서 지식과 꺼지지 않는 영감의 근원을 찾았다.

그 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애니타는 활동 회원으로 1년을 지낸 후 성전에서 성약도 맺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에게 많은 구도자를 소개해 주었으며 그녀가 속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어 교회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바꾸어 놓기 시작했다.

오늘날 나는 나와 동반자가 온갖 역경을 겪었던 경험을 소중히 여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발견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칠레의 고향으로 돌아온 지금도 나는 역경이 나에게 힘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골치 아픈 문제들로 인해 실망하지 않는다.

한 개의 씨앗에서 얼마나 많은 사과를 거둘 수 있을까?

글: 홀리오 세사르 소노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타는 듯한 브라질의 여름 별 속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노력하던 두 젊은이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 “아저씨들은 몰몬이지요?” 하고 물었던 기억이 난다. 나는 그 전에 선교사를 본 적은 없었지만 삼촌이 한동안 교회 회원이었으므로, 땀을 흘리는 그 두 젊은이들이 삼촌이 늘 말하던 그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임에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때는 1970년이었다. 나는 겨우 열세 살이었다. 나는 그 같은 단순한 질문을 했을 때 보았던 미소처럼 환한 미소를 한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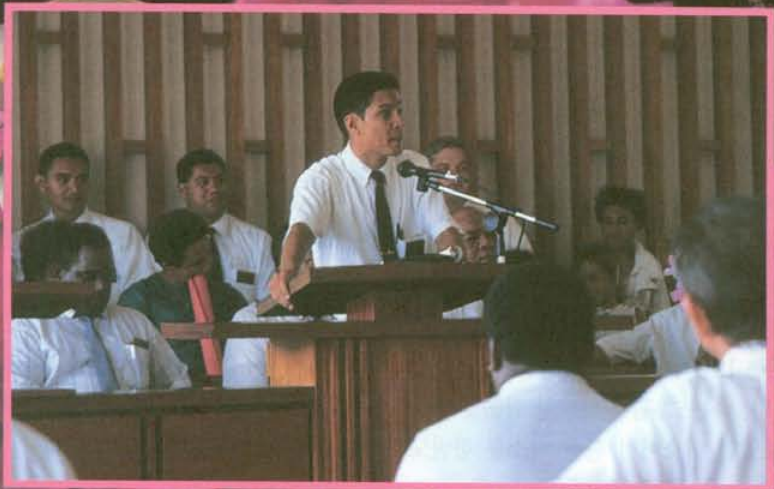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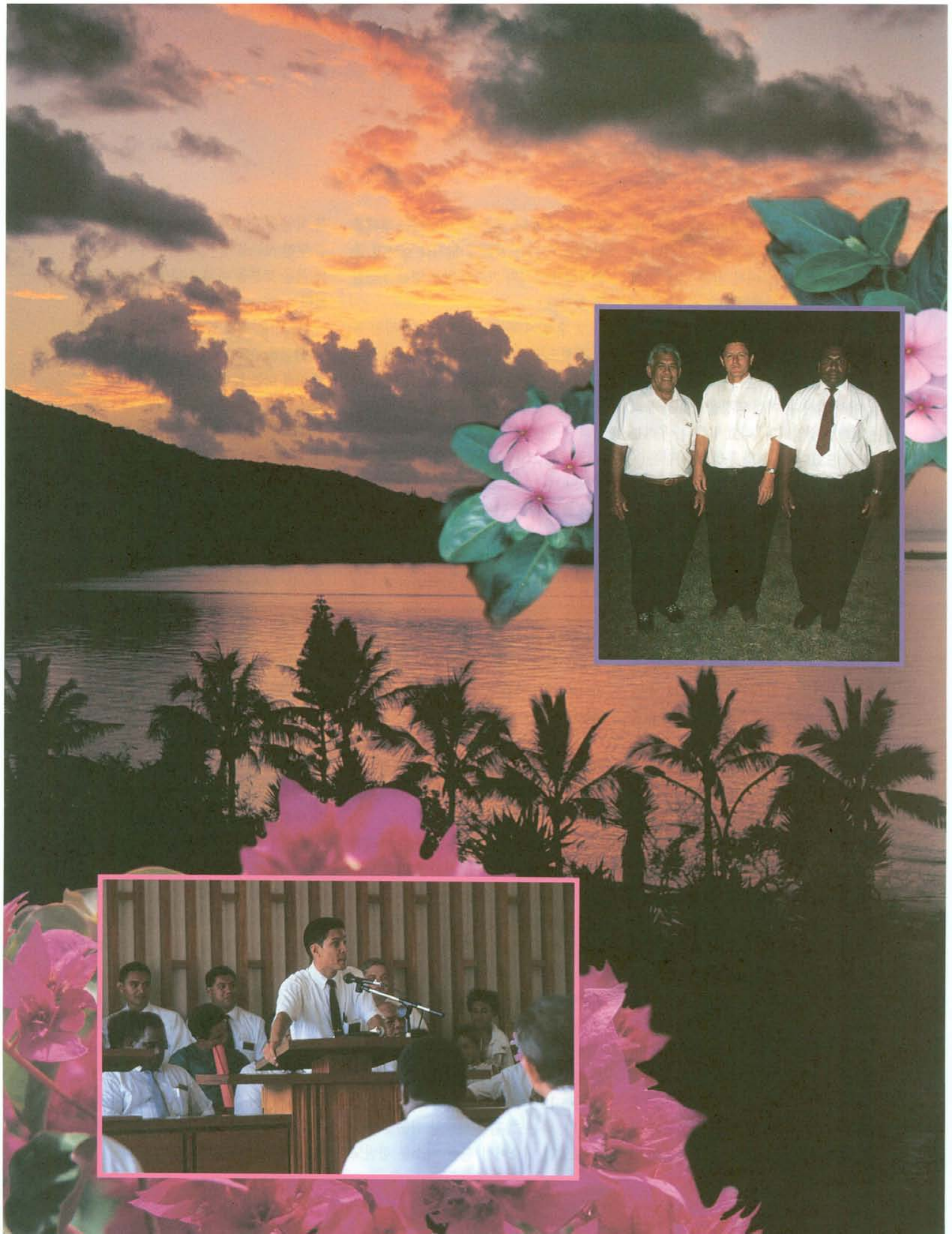
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첫 번째 복음 토론을 위한 시간을 정했다. 나는 누이 셋과 함께 복음 토론을 마치고 나서 곧 침례를 받았다.

선교사들이 네 명의 청소년들에게 그토록 관심을 갖고 가르치며 우정 증진을 하던 일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우리에게 교회가 없어 아쉬워하고 있었을 때 그들은 우리를 만나게 되었고 자주 방문해 주었다. 선교사들이 왜 그토록 우리에게 관심을 쏟을까? 우리 같은 청소년을 위해 노력하는 일이 무슨 가치가 있는 일일까?

나는 선교사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쳤던 클라크 장로와 부시만 장로를 생각해 보았다. 그들은 씨앗들을 심었고, 그 씨앗들은 싹이 나 성장했다. 이 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씨앗들을 뿌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산드라는 내가 침례받을 무렵 침례받았던 나의 친구이다. 그녀와 나는 둘 다 선교 사업을 마쳤다. 그리고 산드라의 자매들 가운데 한 사람은 현재 선교사로 나가 있다. 한편 내가 선교사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가르치고 침례 주었던 청소년들 가운데 다섯 명도 역시 선교사로 나가 있다. 나의 아들 또한 브라질 캄피나스 선교부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 모든 일은 나를 가르쳤던 두 사람의 선교사들이 나와 나의 교회 활동을 위해 관심을 쏟은 덕분에 일어난 것이다.

여러 해 전의 일이다. 상파울루 성전 헌납식 때 산드라가 나에게 부시만 장로의 주소를 전해 주었다. 나는 부시만 장로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장로님은 한 알의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을 헤아릴 수는 있어도 그 씨앗들이 맺게 될 사과가 몇 개나 될지 알지 못하실 겁니다.” □



빛의 섬들

알 발 존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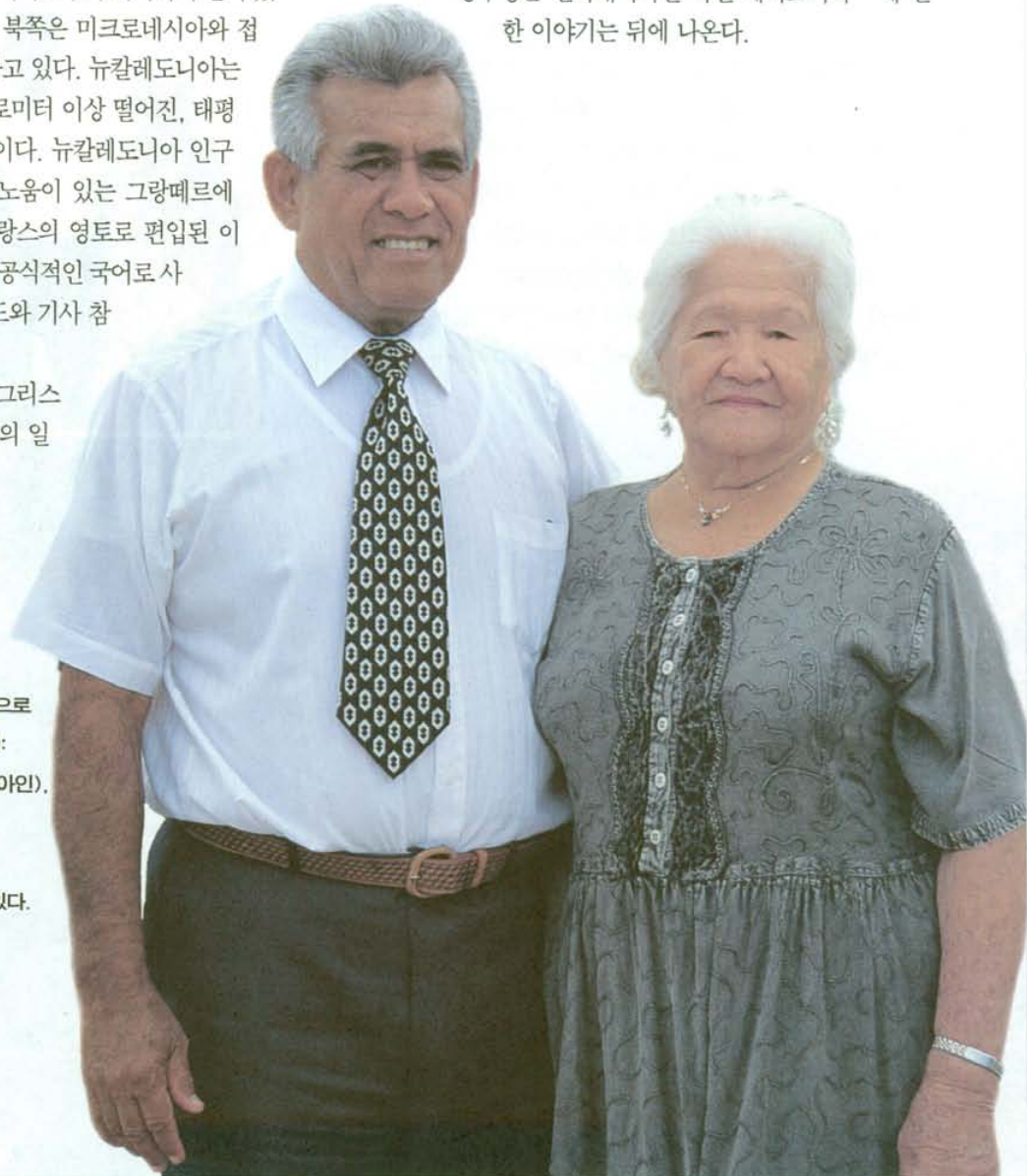
사진 촬영: 알 발 존슨

뉴칼레도니아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남태평양의 섬 이름을 여러 개 갖고 있다. 원주민들은 그들의 섬을 인간들의 고향이라는 뜻을 지닌 카나키라고 부른다. 19세기에 프랑스가 뉴칼레도니아에서 가장 큰 섬을 식민지화했을 때에는 프랑스인들이 그 섬을 큰 땅이라는 의미의 그랑떼르라고 불렀다. 오늘날 그 고장 사람들은 그랑떼르를 르깅로(반석) 또는 밀드루미에르(빛의 섬)로 부르기도 한다. 이 이름들은 모두 회복된 복음의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삶의 토대를 쌓고 있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들에게 어울리는 것들이다.

뉴칼레도니아는 남태평양의 뉴기니아로부터 피지까지 뻗어 있는 멜라네시아 군도의 일부분이다. 북쪽은 마이크로네시아와 접경하고 동쪽은 폴리네시아와 접경하고 있다. 뉴칼레도니아는 오스트레일리아 동쪽으로 1500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태평양에서 확고한 지위를 가진 섬나라이다. 뉴칼레도니아 인구의 대부분은 뉴칼레도니아의 수도 노움이 있는 그랑떼르에 거주하고 있다. 뉴칼레도니아가 프랑스의 영토로 편입된 이후 뉴칼레도니아인들은 프랑스어를 공식적인 국어로 사용하고 있다.(43 페이지의 관련 지도와 기사 참조)

뉴칼레도니아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조직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

이다. 1844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선교사들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 도착했을 때의 경우와는 다르다. 불과 수십 년 전, 폴리네시아 회원들이 취업을 위해 수도 노움으로 갔을 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뉴칼레도니아에 처음으로 소개된 것이다. 당시 폴리네시아인 회원들 가운데 티휴마누 마노라는 이름을 가진 타히티 섬 출신 젊은이가 있었다. 그에 관한 이야기와 그가 뉴칼레도니아의 첫 번째 지방부장이 된 내력은 뉴칼레도니아에 교회가 조직되기 시작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그의 후임자들 - 그의 첫 후임자는 유럽 사람인 리카르도 가야였으며 지금의 지방부장은 멜라네시아인 아벨 세이코이다 - 에 관한 이야기는 뒤에 나온다.



왼쪽, 위: 뉴칼레도니아에서 지방부장단으로 봉사한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세 사람:
(왼쪽부터)티휴마누 마노 형제(폴리네시아인),
리카르도 가야 형제(유럽인);
아벨 세이코 형제(멜라네시아인)
왼쪽: 한 선교사가 침례식에서 말씀하고 있다.
오른쪽: 티휴마누 마노와 티 오토 마노

클림 밤 은 빛

폴리네시아인들

티휴마누 마노는 1954년 5월 24일에 타히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들어왔다. 그런데 같은 날 그는 결혼을 했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는 아니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그가 입교하지 않았더라면 떼 로프 자매는 그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떼 로프 자매의 부모는 교회 회원이었고 그녀는 여덟 살에 침례를 받았다. 교회 회원이 아닌 남자라면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한 떼 로프 자매는 티휴마누 마노 형제를 설득하여 그로 하여금 교회에 관심을 갖도록 무척 노력했었다.

마노 형제는 자신의 부친이 타히티 개신 교회의 목사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했다. 그러나 그는 떼 로프 자매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가 준 복음 자료를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십일조에 관한 말씀을 읽었을 때 그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십일조를 바침으로써 교회를 지탱케 해 주는 신도들을 인도하는 성직자가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티휴마누 마노에게는 다른 교회들이 지닌 그 어떠한 점보다도 훌륭하게 그리스도다운 정신으로 보였던 것이다. 그는 이같이 말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무보수로 봉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종들이 무보수로 봉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새로운 개종자들이 그렇듯이 티휴마누 마노의 최

초의 결심도 세상적인 압력에 흔들렸고, 그가 지닌 복음의 빛은 조금씩 희미해져 갔다. 1957년 취업을 위해 가족을 데리고 노움으로 오고부터 마노 형제는 다시 담배를 피우고 술도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것을 참다 못해 떼 로프 자매는 타히티에 있는 부모님에게 되돌아갔다. 아내를 찾아간 마노 형제의 마음은 몹시 불안하고 떨렸다. 그들이 결혼할 때 장인께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자네를 믿고 딸을 맡기는 걸세. 내 딸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네." 마노 형제는 아내 떼 로프 자매와 장인 어른께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나쁜 습관을 영원히 버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켰다. 마



노 형제는 1959년에 다시 노움으로 돌아왔고, 2년 후인 1961년에 노움 지부가 조직될 때 지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노움 지부가 처음 조직되었을 때에는 지부에 다섯 가족밖에 없었다. 회원들의 모임도 마노 형제의 집에서 가졌다. 그 후에는 모임 장소를 어떤 극장으로 옮겼고, 또 그 후에는 맥주 상자와 청량음료 상자를 조립해서 만든 교실로 옮겼다. 그러다가 중국 음식점으로 옮기기도 했다.

마노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지부는 저의 심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모임 장소가 엉망이었습니다. 모임을 갖는 동안에 밖에서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 줄을 서 있거나 줄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극장 주인이 위스키 병을 따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소유의 예배당이 필요했습니다.”

1970년 드디어 예배당 건축 부지를 매입했다. 지부 건축 기금 모금 운동의 일환으로 노움에 오는 유람선에서 폴리네시아 춤 공연을 갖기로 했다. 선박에서 공연이 끝난 후 선장이 지부 회원들을 선장실로 초대했다. 거기서 그들은 선장이 유타 주에서 온 말 일성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이들의 만남은 즉각적인 유대감을 조성해 주었다. 이 일은 뉴칼레도니아에 교회가 조직되던 초기에는 섬 밖의 교회 회원들과의 접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매우 이채로운 일이었다.

앞서 말한 변화를 가져오게 한 최초의 조짐은 1968년에 일어났다. 이 해에 십이사도 정원회의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가 뉴칼레도니아를 복음 선교 지역으로 헌납했고, 뉴칼레도니아에서 봉사할 최초의 선교사 해롤드와 지나인 리차즈 부부가 현지에도 착했다. 이들이 처음으로 개종시킨 사람은 열세 살 난 에티옌 선이었다. 이들에 이어 다른 선교사들이 들어 왔고 개종자들도 계속 늘어났다. 그러다가 1976년에 노움 지부는 두 개 지부로 분리되었고, 같은 해에 피지 수바 선교부 산하에 뉴칼레도니아 지방부가 조직되었다. 이때 마노 형제가 초대 지방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마노 형제의 딸 오티스는 자신의 부친이 자주 모임에 참석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마노 형제는 종종 초대를 받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하다가 집을 나서야 할 경우가 많았고 보통 두세 시간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오티스 자매는 기억을 더듬으면서 자신의 부친은 항상 바빴지만 교회 지도자들의 가족과 함께 그 이상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한다.

오티스 자매는 지부장 시절과 지방부장 시절의 지도력에 대해 자신의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다. 오티스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는 교회 회원들과 상담하면서 들으셨던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또한 아버지는 회원들을 비판하기보다 회원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돕는 일에 더 관심이 많으셨죠. 때로는 어떤 회원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금식하며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시곤 하셨어요. 어떤 때는 그들과 함께 우시기도 하셨고요. 파문 위기에 놓여 있던 어떤 숙녀 회원은 10년 만에 돌아와서 아버지께 자신을 다시 침례 받게 해주시고 교회에 재입교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한 일도 있었어요.”

유럽인들

마노 지부장이 오랫동안 고대해 왔던 마겐타 예배소의 건립(1971년)과 노움에서 세 번째로 계속되는 지부의 조직(1978년)을 감독하느라 한창 바쁠 무렵, 장차 지방부장이 될 그의 후임자 리카르도 가야는 이제 겨우 교회를 소개받고 있었다. 리카르도 가야는 그 후 교회 지도자가 될 것을 권유받기도 했다. 그는 뉴칼레도니아 태생도 아닐 뿐만 아니라 태평양 섬 사람도 아니다. 그는 스페인 내란 후 스페인에서 이주해 온 스페인인 부모 밑에서 프랑스에서 태어났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을

왼쪽: 마노 형제 부부와 그들의 딸 오티스
오른쪽: 지방부장 시절에 리카르도 가야 형제는
개종자 침례 건수를 늘리기 위해 선교사들과
긴밀히 활동했다.







때 그의 가족은 유럽을 아주 떠나야 했다. 리카르도의 부모는 가족을 데리고 호주로 가서 3년을 지냈고 거기서 다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뉴칼레도니아로 이주했다.

애니타 가야 자매의 가족은 뉴칼레도니아에서 3대 동안 계속 살아오고 있었다. 애니타와 리카르도는 어떤 파티석상에서 만나 알게 되었고 1968년 결혼했다. 그로부터 3년 후, 애니타의 어머니 가브리엘 레이글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때 애니타의 어머니는 두 딸 애니타와 아멜레에게 복음 토론을 듣자고 했다. 당시 리카르도 형제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본업인 축구 골키퍼와 주장으로서의 일에 너무 바빠기 때문이었다.

애니타 자매 모녀는 애니타의 생일인 10월 23일에 침례를 받았다. 애니타 자매가 교회에 대한 일로 즐거워 하는 것을 보자 리카르도는 그녀에게 무언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눈치챘다. 애니타는 리카르도에게 선교사와 복음 공부를 할 것을 권했고 그는 그 제의에 동의했다. 결국 리카르도는 1972년 1월에 처제인 아멜레 아파리시와 함께 침례를 받았다. 그 다음날에는 아멜레의 남편 미구엘이 침례를 받았고, 몇 달 후에는 미구엘의 동생 후란이스와 미구엘의 처제인 마테레이네 구에레라 역시 침례를 받아 교회 회원이 되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처음 접할 때 선교사가 전하는 메시지만에 자신이 늘 알고는 있었지만 복음을 들을 때까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진리가 있음을 발견한다. 이것이 바로 친숙한 진리의 빛이다. 가야 자매의 가족과 그들의 확대 가족의 경우도 그랬다. 가야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메시지는 마치 메아리처럼 들렸어요. 그들이 설명한 교회의 모습은 교회라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언제나 상상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듯 편안함을 느꼈어요."

리카르도 가야 형제 역시 같은 느낌이었다. "저에게선 선교사의 메시지가 꼭 단순하게 들렸죠. 이 교회는 내가 언제나 기다리며 찾았던 종교였습니다. 선교사가 십일조에 관해 이야기했을 때, 나는 '왜 못 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면 난 십일조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술을 마시지 말라', 이 계명도 지키기 어렵지 않았어요."

리카르도 가야 형제에게 지키기 어려웠던 계명은 일요일에 축구 경기를 하는 것을 그만두는 일이었다. 그것은 가야 형제에게 있어 정말 큰 희생이었다. '르니켈 연합 축구팀'의 주장으로서 그

왼쪽: 바누아투 출신의 매리 엘리자베스(중앙)는 취업을 위해 뉴칼레도니아로 왔다. 여기서 그녀는 직장을 얻었고 리카르도 가야 지방부장 부부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알게 되었다.

위쪽 상단: 리카르도 가야 형제의 가족

위쪽: 개척자 회원들인 지 아드와 셀로아 모우 탐

는 모든 게임에 참가해야 한다는 책임을 팀 동료들에게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뉴칼레도니아에서는 그가 참여할 중요한 축구 경기가 일요일에만 열린다. 가야 형제는 우수한 선수였을 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국가 대표팀의 골키퍼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가 지방부장 보좌로 부름받았을 때 더 이상 높은 수준의 경기는 계속할 수 없으리라는 것이 분명했다. 그의 말대로 그는 "동시에 두 개의 길을 걸을 수는 없었다." 가야 형제는 주님께 대한 의무와 축구에 대한 의무를 동격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일을 포기했다.

1973년 3월 3일 리카르도 형제와 애니타 자매, 그들의 두 자녀, 그리고 장모님과 함께 성전에서 헌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 의식을 받기 위해 뉴칼레도니아에서 뉴질랜드로 여행하는 첫 가족이 되었다.

리카르도 가야 형제는 1974년 회사의 지시에 따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파리에 5년 간 있는 동안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풍성했죠." 파리에서 지내는 동안 그는 베르사유 와드의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회사가 다시 그를 뉴칼레도니아로 전근 발령을 내릴 때까지 이 와드에서 9개월 동안 감독으로 봉사했다. 그러다가 1981년 5월 리카르도 가야 형제는 지방부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프랑스 파리에서 뉴칼레도니아로 돌아온 후 2년이 채 안되어 이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 후 그는 거의 16년 간 지방부장으로 봉사했다.

어떻게 보면 가야 형제의 지방부장으로서의 봉사 기간은 뉴칼



레도니아 교회가 성장하는 과도기라고 말할 수 있다.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입교했고 교회 회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교회의 성숙도 또한 높아졌으며, 문화를 달리하는 여러 그룹의 회원들을 보다 잘 다룰 수 있게 되었다. 1996년 11월 리카르도 가야 지방부장이 해임될 무렵 지방부에는 다섯 개의 지부가 있었다. 즉 노움에 네 개 지부와 노움 북쪽으로 50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톤투우타에 한 개 지부가 있었다. 다섯 개 지부 중 두 개 지부는 특별히 폴리네시아인 회원들을 위해 조직된 지부였다.

이 기간 동안 리카르도 가야 형제는 몇 명의 충실한 보좌의 도움을 받았다. 그의 보좌들 가운데 한 사람은 자코 드제후로이인데 그는 15년 동안이나 가야 형제와 함께 봉사했다. 드제후로이 형제는 유럽계, 멜라네시아계 그리고 인도네시아계의 혈통을 이어 받았다. 때문에 그의 복잡한 혈통은 뉴칼레도니아에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 집단을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그가 새로운 회원들과 교회에 들어온 지 오래된 기성 회원들을 똑같이 다루는 데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또 한 사람의 보좌는 1995년에 부름받은 아벨 세이코였다. 그는 멜라네시아 토박이이다. 아벨 세이코 형제의 보좌로서의 부름은 리카르도 가야의 지방부장 해임 후 그를 후임자로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멜라네시아인들

다음은 리카르도 가야 형제의 말이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동안에는 그전보다 많은 수의 멜라네시아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한때는 침례자 수가 1년에 20~30명이었지만 요즘은 80~9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멜라네시아인들이죠. 지금은 멜라네시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이코 형제를 우리의 지방부장으로 삼아야 하

위쪽: 매리 엘리자베스와 한 소년(노움 출신)이 같은 날에 침례를 받았다.
오른쪽: 뉴칼레도니아의 현 지방부장 아벨 세이코 형제

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멜라네시아인들을 다루어야 할 중책이 있는 것입니다.”

아벨 세이코는 리포우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선교사들이 그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을 때는 노움에서 살고 있었다. 아벨 세이코와 그의 미래의 아내 루이스는 2개월 동안 토론을 받고 나서 침례 받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들은 두 가지 큰 장애에 부딪혔다. 멜라네시아에서는 부족은 한 가족의 연장선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모든 중요한 결정은 친 부모와 부족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하지만 아벨과 루이스는 아직 결혼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두 번째 장애는 아마 첫번째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였다. 리포우에는 1842년부터 런던 출신 개신교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아벨의 부족은 그때부터 개신교 신자였다. 따라서 종교를 바꾸는 일은 부족을 버리는 것을 의미했다.

아벨 세이코는 간증을 갖고 있었다. 그는 주님의 교회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결혼해야 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부모와 족장의 승인을 얻기 위해 용기를 내 리포우로 갔다.

아벨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먼저 아버지께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안 돼. 그것은 우리 관습이 아니야. 네 큰형이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

대로 생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참된 교회에 가입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자 저의 아버지는 나는 허락할 수 없다. 네가 하고 싶다면 맘대로 해. 그러나 네가 결혼하기로 결정한다면 나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다음에는 부족의 장로들을 찾아가 결혼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재판받고 있음을 느꼈다. 그들은 아벨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다른 교회에서 침례도 받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아벨은 부모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허락을 받았으며 자기는 결혼해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가입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부족 장로들은 아벨에게 체벌을 가하기 위해 큰 회초리를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그때 다행스럽게도 체형이 시작되기 전에 대족장이 도착했다. 아벨은 그때 대족장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 “여기서는 아무도 체형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부족은 다른 종교를 허용치 않는다. 네가 다른 종교에 가입하고 싶다면 우리 부족을 떠나라.”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아벨은 노움으로 돌아가 결혼했다. 아벨과 루이스는 1977년에 침례를 받았고 결혼식도 아벨의 말대로 “리포우에서의 결혼식과는 달리” 간소하게 치렀다. 아벨은 이렇게 말한다. “리포우에서는 많은 액수의 결혼 비용이 주위 사람들에게 요구됩니다. 거기서는 누구나 족장으로부터 신혼 부부에게 무엇무엇을 해주라는 명령을 받으면 그것을 신혼 부부에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세놓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마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가 권고한 방식을 따랐습니다. 친구들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의식을 치렀습니다.” 아벨의 가족 중 결

혼식에 참석한 사람은 아벨의 어머니뿐이었다. 아벨의 아버지는 그의 말대로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부족의 유대는 정말 대단하다. 아벨은 부족의 유대가 참으로 강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교회에 가입한 지 1년 후 그는 “부모님과 부족이 몹시 보고 싶다”고 말했다. 결국 가족을 거느리고 리포우로 돌아갔고 교회 지부가 없는 그 곳에서 6년 동안이나 교회





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냈다.

아벨 세이코 형제는 이렇게 회상한다. “6년 동안 저는 변변한 일자리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문제를 일으켰고, 모든 일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바탕 크게 언쟁이 벌어진 후 루이스가 그만 노움으로 떠나고 말았어요.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루이스는 알고 있었던 거죠. 아내가 떠난 후 저는 집으로 가 다시 성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 밤새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며칠 후 아벨 세이코 형제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자신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교회가 참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저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지금 주님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그 후 아벨은 초등학교 교사, 장로 정원회 회장, 두 개의 지부에서 지부장단 보좌, 지부장, 고등 평의원, 지방부장단 보좌를 역임했고, 지금은 지방부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아벨 세이코의 지방부장으로서는 목표는 자신의 지방부를 스테이크로 승격시키는 일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지방부가 스테이크가 되기 위해서는 1500명의 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아직도 200~300명의 회원이 더 필요하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취해야 할 과제입니다.”



모든 회원이 한 가족임

“멜라네시아인들은 충실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멜라네시아인 관습 가운데는 교회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루는 부분이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관습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멜라네시아인들의 관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라네시아인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들으면 곧 그들의 마음이 끌리게 되지요. 멜라네시아인들의 관심을 끄는 또 한 가지는 교회가 가정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점입니다. 회원들이 보이는 모범도 꽤 도움이 되지요. 그들은 사람들의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벨 세이코 지방부장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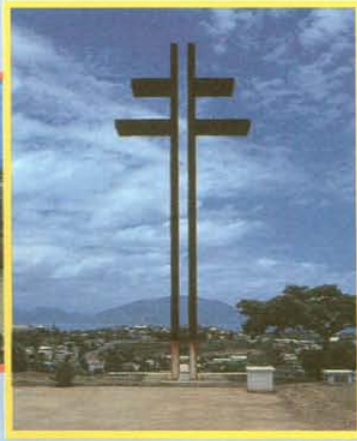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변화의 하나는 교회 회원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사실이다. 때때로 드러나는 뉴칼레도니아의 이질 문화의 불안한 혼재 속에서 교회 회원들의 단합은 빛을 발하고 있다.

뉴칼레도니아의 정치가 긴장을 띠고 있었던 1984년과 1985년 당시의 일을 리카르도 가야 형제는 이렇게 회상한다. “뉴칼레도니아의 원주민인 카나크는 물론이고 적어도 이들을 대표하는 정당 역시 뉴칼레도니아의 독립을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프랑스 측은 프랑스 측대로 프랑스 주민들을 그대로 잔류시키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양쪽 정당이 이같이 서로 다투고 있을 때였습니다.”(당시 두 정당간의 싸움은 때때로 격렬했었다.)

“1986년 프랑스 정부 측 사람들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교회의 입장을 이렇게 물었다. ‘당신네 교회는 이 나라가 독립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프랑스의 영토로서 이대로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임에서 정치 토론을 배제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프랑스 사람뿐만 아니라 폴리네시아 사람이거나 멜라

왼쪽: 뉴칼레도니아는 윈드서핑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남태평양에서 복음의 빛의 섬으로도 잘 알려지고 있다. 선교사들(맨 왼쪽)과 회원들 그리고 아벨 세이코 지방부장(왼쪽)이 회복의 진리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 리비에살 지부에서 크리스마스 행사가 치러지는 모습. 회원들이 음식을 차려 놓고 즉흥 공연을 하며 재미있는 듯 싱글벙글거리고 있다.





네시아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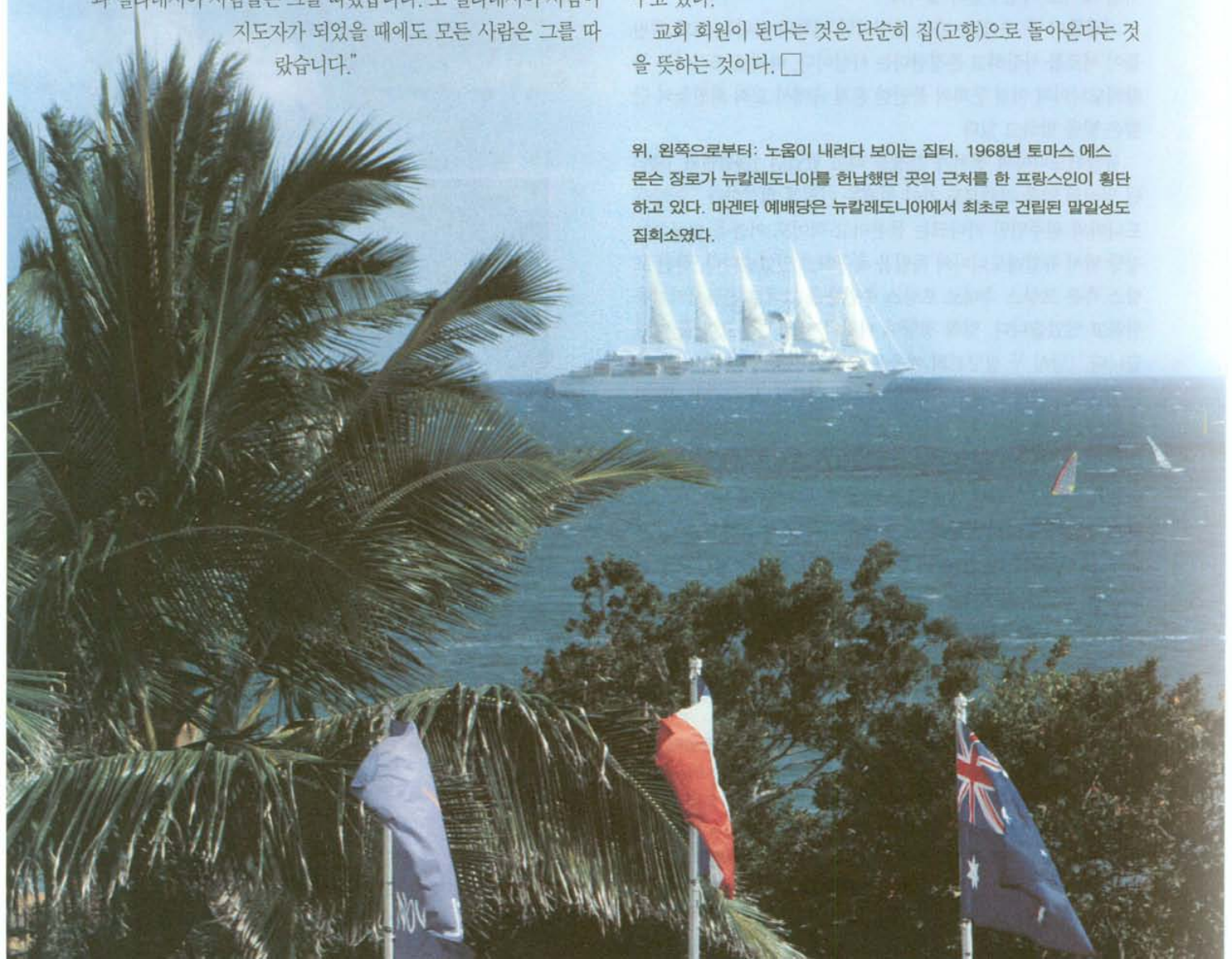
“제 생각으로는 모든 사회 단체들이 함께 모여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유일한 교회가 이 나라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교회는 바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유럽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도 폴리네시아 사람과 멜라네시아 사람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또 멜라네시아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도 모든 사람은 그를 따랐습니다.”

뉴칼레도니아에서 교회 회원이 교회 지도자나 다른 회원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분명히 단합과 수용의 영이 존재한다. 그들은 세계에 다양한 문화가 존재할지라도 교회가 모든 문화를 포용하고 도리어 격려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태평양의 이 빛의 섬들은 우리의 국적과 언어와 문화가 무엇이든 우리 모두는 동일한 가정의 구성원, 즉 하나님 가정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밝혀 주고 있다.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집(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

위, 왼쪽으로부터: 노움이 내려다 보이는 집터. 1968년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가 뉴칼레도니아를 헌납했던 곳의 근처를 한 프랑스인이 횡단하고 있다. 마켄타 예배당은 뉴칼레도니아에서 최초로 건립된 말일성도 집회소였다.



뉴칼레도니아: 위치 및 국민



뉴칼레도니아는 멜라네시아의 일부인데, 멜라네시아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뉴기니아/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남태평양의 이곳 섬들로 이주해 온 검은 피부를 가진 이민을 지칭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지역의 특징은 비교적 큰 섬인 데다 산이 많고 무려 900종이 넘는 카나스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집단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19세기에 유럽국 지배하에 식민지화될 때까지 이 집단들은 서로 간에 거의 접촉이 없었고, 또 약간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계급이 없는 부족 사회 형태로 지내고 있었다.

뉴칼레도니아에서 가장 큰 섬 - 남태평양에서는 여섯 번째로 큰 섬이지만 - 은 그랑테르이다. 그랑테르 동쪽에는 로열티 군도가 있다. 로열티 군도 중 주민이 살고 있는 주요 섬들은 오우브, 리포우 그리고 마르이다. 뉴칼레도니아 내에서 주민이 살고 있는 섬들로는 그랑테르 남쪽에 위치한 파인즈 아일랜드, 북쪽으로 위치한 비에프 아일랜드, 그리고 인근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작은 섬들이 있다.

뉴칼레도니아 인구의 약 46퍼센트는 멜라네시아인이다. 35퍼센트는 유럽인, 주로 그랑테르에 집결해 있는 프랑스인이다. 그리고 약 13퍼센트는 폴리네시아인이다. 나머지는 아시아(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서인도 제도 및 중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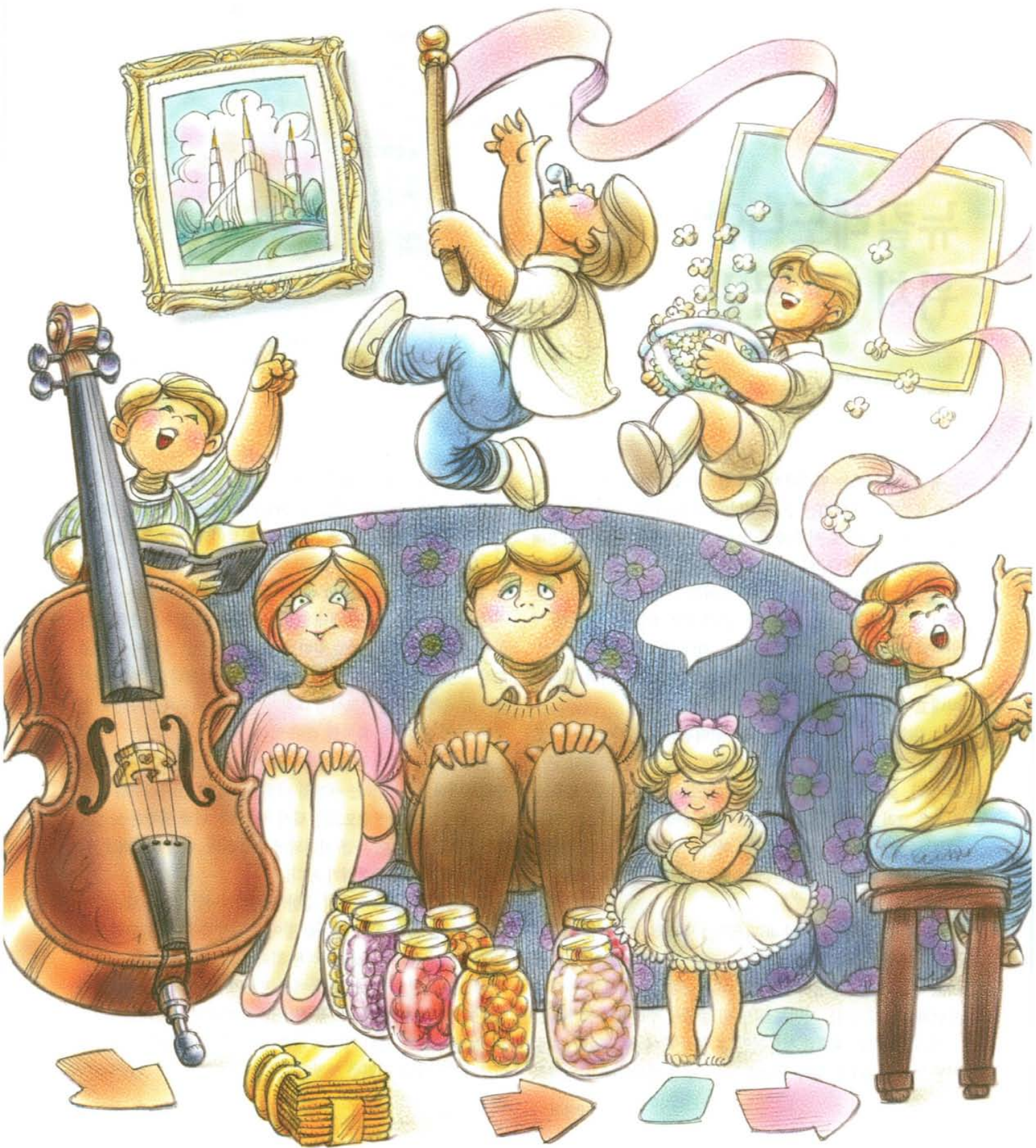
멜라네시아는 대체로 전통적인 섬 문화 속에 싸여 있다. 그렇지만 뉴칼레도니아, 특히 그랑테르의 노움은 예외이다. 그랑테르

는 1853년 니폴레옹 3세에 의해서 프랑스에 합병된 후 식민지가 되었다. 그리고 로열티 제도는 1866년에 합병되었다. 뉴칼레도니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프랑스의 영토이다. 인구 10만의 국제 도시인 노움은 때로는 남태평양의 파리로 불리워진다. 해변에는 고급 호텔이 늘어서 있고 식당들은 구미를 만족시키는 음식을 서비스한다. 노움은 1년 내내 프랑스의 남부 지방과 비슷한 온화한 날씨를 가진 데다 많은 항만과 큰 산호초들로 둘러싸여 있고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인기 있는 관광지이다. 노움은 정기적으로 세계 선수권 윈드서핑 대회가 열린다. 노움의 선수들도 한 차례 이상 선수권을 획득한 적이 있다.

관광 사업은 니켈 광업 다음으로 손꼽히는 뉴칼레도니아의 주 수입원이다. 그랑테르는 세계의 니켈 매장량의 25퍼센트를 보유하고 있어 니켈 생산량으로는 세계 3위이다. 니켈 원광은 노움으로 운반되고 여기서 가공 처리되어 수출된다. 때문에 노움은 이 지역 경제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

1980년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멜라네시아인들이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로비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을 때, 뉴칼레도니아는 심각한 정치적 소요를 겪은 적이 있다. 프랑스 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취했고 뒤따른 충돌에서 프랑스인과 멜라네시아인 60여명이 생명을 잃었다. 그 후 1988년에 이르러 뉴칼레도니아를 프랑스의 영토로 하되 카나크 대표를 더 많이 허용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비로소 평화를 되찾았다. □

가정의 밤은 완벽하지



함아도 된다.



폴 제이 랜드

그림: 엔 케이 스티븐슨

우리 가족 가운데 가정의 밤을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일요일 아침 차를 몰고 교회로 가는 도중에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 불행히도 우리 가족은 가정의 밤을 일요일 오후에만 가질 수 있었다. 다섯 살짜리 드루는 즉시 간식으로 팝콘을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우리가 공과와 게임을 맡은 열두 살짜리 스투어트에게 임무를 상기시켜 주었더니 스투어트는 투덜거렸다. 그 아이의 불평은 특별한 재능 발표 지명도 그렇게 특별한 것 같지 않다는 듯이 들렸다.

교회의 정규 모임이 끝난 후, 나와 아이들은 계속해서 다른 모임에 참석했고 아내 샌디는 합창단 모임에서 피아노 연주를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스투어트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동안 도서실에서 가정의 밤 교재를 살펴보고 있었으며 공과는 준비되었다고 알려 주었다. 일은 잘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오후였다. 일곱 살짜리 커트가 가족 모두 앞에서 가정의 밤 개회 인사를 한 다음, 두 살짜리 홀리에게 개회 기도를 부탁했다. 바로 그때 홀리는 가정의 규칙을 어기고 아내 샌디의 피아노 교습 교재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다. 우리는 홀리를 달래어 앞으로 데려와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애썼다. 그러나 기도를 시키면 홀리는 “아멘” 소리만 하는 것이었다. 홀리가 기도를 마치자 우리는 홀리의 기저귀가 젖어 있어 갈아 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

우리 가족의 가정의 밤이 비록 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훌륭한 가정의 밤이었다. 우리는 함께 있는 시간을 즐겼고 몇 가지를 배웠다. 온 가족이 적어도 가정의 밤 시간의 일부는 참석했고 많은 가족이 대부분의 시간에 참여했다.



나와 아들들은 스튜어트의 재즈 밴드 연주회의 관람 문제, 드루와 커트의 농구 시합의 응원 문제, 그리고 아내가 교회 통조림 만드는 일을 시간 내 끝낼 수 있도록 가족이 도와주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했다. 이 일들은 모두 수요일 밤에 일어난 일들이었다. 아내와 홀리는 곧 돌아와 우리의 계획 사항을 듣고 만족해 했다.

그리고 나서 커트가 각자의 재능 발표 시간임을 알렸다. 홀리는 맞지도 않는 박자로 피아노를 아무렇게나 서너 번 쳤고, 열 살 짜리 스펜서는 베이스 기타로 최신곡을 연주했다. 그 다음 아내 샌디와 스튜어트는 신나게 피아노 이중주곡을 연주했다.

연주회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자 아내가 이제는 온 가족이 노래 한 곡만 함께 부르자고 했다. 우리는 모두 찬성했다. 아내는 노래책을 펴놓고 행진곡을 피아노로 연주했고 나와 스튜어트는 피아노로 다가가 아내의 어깨 너머로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어린 세 꼬마들은 거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행진했다. 그리고 스펜서는 소파에 누워 있었다.

즐겁게 노래를 부른 우리는 한 곡 더 부르자고 아내에게 제안했다. 우리는 노래를 불렀고 이번에는 스펜서도 함께 불렀다. 한편 작은 아이들은 행진 반경을 넓혀 이층 침실까지 올라갔고 침대에 올라가 강충강충 뛰어댔다. 아내가 계속 피아노를 치는 동안, 나는 꼬마들이 침대에서 장난치는 것을 제지시켰다. 그 후 우리는 노래를 세 곡 더 불렀다.

다음에는 스튜어트의 공과가 보물 찾기를 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스튜어트가 방바닥에 미리 붙여 놓은 종이 화살표를 따라가 두개의 포장된 바구니를 찾아냈다. 위쪽에 있는 작은 바구니에는 커다란 X자 종이 붙여져 있었다. 꼬맹이들이 둘러보는 가운데 우리는 "숨겨진 사탕 보화"라는 딱지가 붙은 그 작은 바구니를 뜯어 보았다. 우리는 모두 사탕 하나씩을 꺼내어 먹었다. 그리고 나서 스튜어트가 "숨겨진 영적 보화"라는 딱지가 붙은 큰 바구니를 열어 보았다. 그 안에는 물론경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스튜어트는 "숨겨진 보화"는 물론경이었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커트와 스펜서가 번갈아 가며 요셉 스미스가 구모라 언덕에서 감춰져 있는 금판을 얻게 된 내

력을 설명했다. 아이들이 스튜어트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 나와 아내는 앉아서 그 설명을 듣고 있었고 홀리는 다른 보물을 찾으러 아래층을 돌아다녔다. 홀리는 보드 게임(판 위에서 말을 움직여 노는 놀이) 카드를 가지고 돌아 왔다. 우리는 꼬마들이 아무에게도 귀찮게 하지 않은 까닭에 모르는 척했다. 홀리가 아래층으로 몇 차례 더 왔다갔다하는 동안 가족 토론은 계속되었다. 드루는 흥미를 잃고 홀리와 들어서 조용히 보드 게임을 하기 시작했다. 스튜어트는 물론경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자신의 공과를 끝낸 다음, 우리들 각자에게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일같이 물론경을 읽는 과제를 주었다. 그리고 나서 각자의 독서 진도를 기록할 도표를 주었다.

스펜서는 친구 애덤과 그날 초등학교 시간이 끝난 후 구약성서를 보다가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라는 성구를 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경책을 펴서 그 구절을 읽고 그 구절은 바로 물론경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토론은 이제 격식을 벗어나 자연스러워졌다. 커트는 흥미를 잃고, 홀리와 드루하고 장난치며 놀았다. 나는 성경에는 그 밖에도 물론경과 땅 속에 물론경이 숨겨진 장소를 가리키는 구절이 또 있음을 지적해 주었다. 우리는 다음 구절을 읽었다. "네 목소리가 신성한 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띠끌에서 지껄거리리라" (이사야 29:4)

스펜서는 다른 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그런 까닭에 물론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영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펜서의 말을 듣고 나는 영감을 느껴 스튜어트에게 물론경에 대한 간증을 어떻게 얻었느냐고 물었다. 스튜어트는 물론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간증을 얻었다고 대답했다. 스튜어트는 잠시 경전을 뒤적거리더니 우리에게 모로나이서 10장 3~5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읽어 주었다.

스튜어트의 공과는 여태까지 우리가 가졌던 공과 중에서 아주 훌륭한 수준이었다. 이날의 공과는 약 20분 동안 계속되었다. 한편 세 꼬마들은 게임 카드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다. 스튜어트는 공과에 연관된 게임을 하나도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으므로 누군가 우리가 좋아하는 맞추기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맨 먼저 스튜어트가 피아노 위로 기어올라 가 설교하면서 상상의 돌맹이와 화살을 옆으로 피하는 시늉을 했다. 우리는 재빨리 레이맨인 사무엘이라고 대답했다. 다음에는 내가 숲 속에서 사냥하다가 온 종일 기도하는 이노스의 연기를 했고, 아내 샌디는 칼을 땅 속에 파묻는 시늉을 했다. 우리는 암몬 백성이라고 알아



맞았다. 작은 아이들은 성경 이야기 밖에는 생각해 낼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삽화가 들은 **물문경 이야기**를 이용하여 도움이 되게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암몬이 라모나이 왕의 양떼를 지키는 무언극을 연기했다. 이 게임은 밤새도록 계속할 수도 있지만 각자 한 차례씩만 하고 끝냈다.

스펜서와 드루, 그리고 나 세 사람은 팝콘을 튀기고 아내는 마실 음료수를 준비했다. 우리는 팝콘이 다 없어질 때까지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했다. 이야기하는 도중에 스투어트가 공원에 가서 뛰어 놀 시간도 계획할 것을 제안하자 온 가족이 좋아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식탁에 앉아 있는 동안 가족 소풍 계획을 짰다. 그리고 나서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어 가족 기도를 했다.

우리 가족의 가정의 밤이 비록 완벽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 훌륭한 가정의 밤이었다. 우리는 함께 있는 시간을 즐겼고 몇 가지 배웠다. 온 가족이 적어도 가정의 밤 시간의 일부는 참여했고 많은 가족이 대부분의 시간에 참여했다.

우리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가정의 밤을 가짐으로써 얻은 몇 가지 교훈은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1. 일정한 날과 시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가정의 밤을 가진다.
2. 가족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임무 순서에 따라 가정의 밤을 진행한다. 우리 가족은 가정의 밤을 위해 충분히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다행스럽게도 훌륭한 가정의 밤을 가질 수 있었다. 중요한 임무는 미리 지명을 해서 준비 없이 아무렇게나 하도록 해서 안된다.
3. 가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줄인다. 가사를 너무 오래 끌면 흥미를 잃어버리는 식구들이 많아진다. 많은 가사 토론은 다른 때에도 할 수 있다.
4. 융통성을 가진다. 우리는 가족들이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노래 부르는 시간을 늘였다.
5. 공과는 한 가지 주제만을 내용으로 하되 가족들 대부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가정의 밤 자료집에는 유용한 아이디어들이 가득 실려 있다. 따라서 이 자료집을 이용하면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6. 공과 시간은 짧게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5분 내지 10분으로도 충분하다.
7. 공과 주제를 여러분의 가정에 적절한 것으로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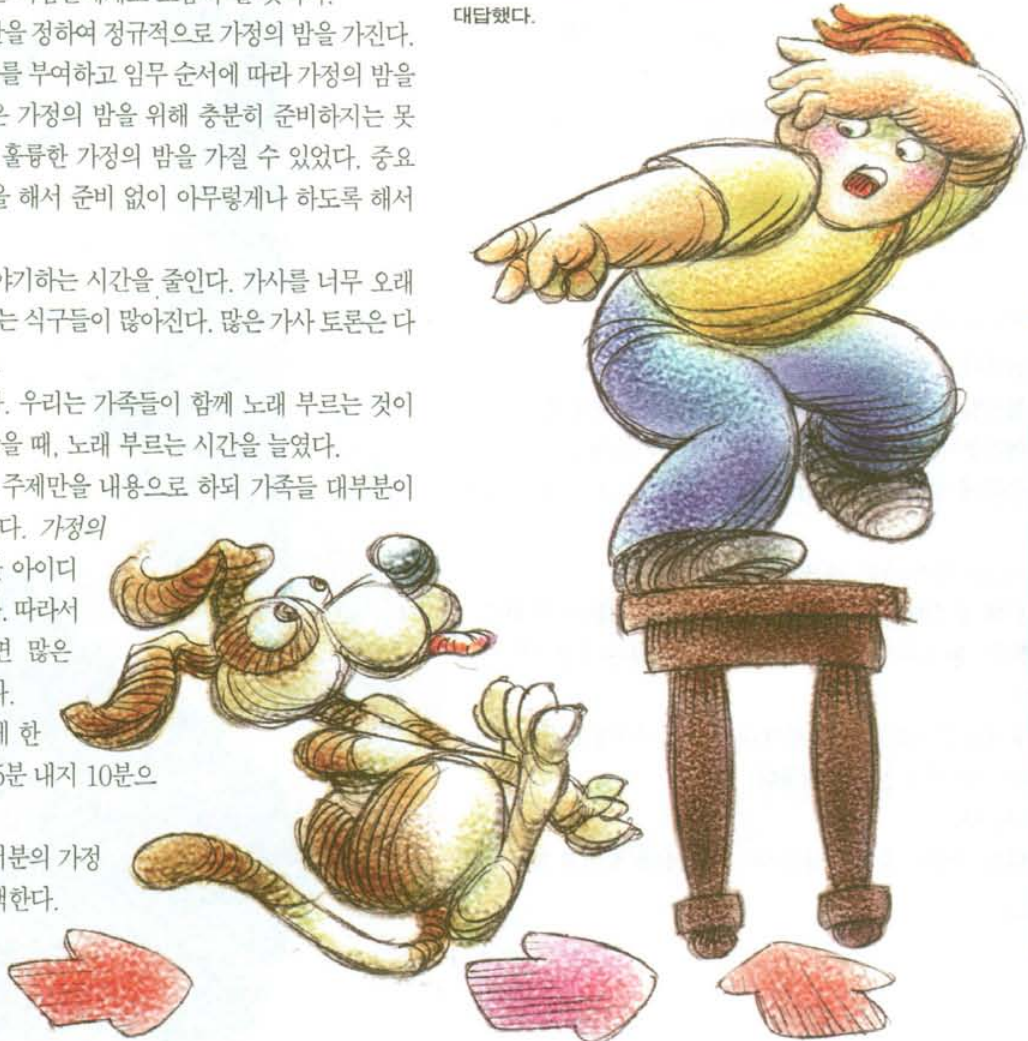
8. 나이 어린 자녀들이 흥미를 잃을 때에는 잠시 동안 내버려둔다. 그러나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하기 시작하면 다시 가정의 밤에 끌어들인다.

9. 가르칠 수 있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10. 게임은 온 가족이 좋아하는 것으로 택한다. 아이들은 게임을 좋아한다. 공과가 잘 준비되지 않았거나 가사 논의가 시간을 끌 때, 게임은 아이들로 하여금 가정의 밤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11. 우리 가족의 가정의 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가족의 가정의 밤도 역시 완전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가정의 밤을 꾸준히 가질 경우, 여러분은 노력하는 가운데 축복을 받을 것이고 더 나은 가정의 밤이 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영감을 받을 것이다. □

스투어트는 설교를 하면서 상상의 돌맹이와 화살을 옆으로 피하는 시뮬을 했다. 우리는 재빨리 레이먼인 사무엘이라고 대답했다.



심리를 동행하라

리사 엠 지 크로켓

그림: 스티브 크롬

감사하는 것은 발전시켜야 할 훌륭한 성품이다. 사람들이
□ 여러분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
람을 돕고, 그들이 여러분을 알고 사귀으로써 기쁨을 느끼게끔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다.

■ 모든 사람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듣기 좋아
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시간을 지킨다. 부득이한 이유로 늦을 수밖에 없다면 사람
들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 옳은 일을 선택한다. 여러분의 친구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
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할 것이다.

■ 이웃을 돕는다.

■ 적당한 때에 간증을 나눈다.

■ 하겠다고 한 것은 반드시 실천한다.

■ 집안일, 숙제, 또는 교회 부름에서 심리를 동행한다.

■ 여러분이 잘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준다.

■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 미소를 보내고 반갑게 인사
한다.

■ 어질러 놓은 것은 깨끗이 치운다.

■ 토론 중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예절 바르
게 말한다. 논쟁은 영을 쫓아내지만 바른 예절은 존경심을 전
해 준다.

■ 동생의 잠자리를 깔아 주거나 어머니 대신에대신에 설거
지를 하는 등 작은 친절을 베풀다.

■ 나눈다.

■ 다른 사람이 좋은 소식을 나누면 관심을 보이고 함께 기뻐
한다. □



그림: 제임스 지크 조세프 티솅,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고침**

12년 간 혈루증을 앓아 온 한 여인이 그 겹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저락을 만졌다. 예수님은 그녀를 알아보고는 몸을 돌려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결국 그 여인은 "그 시로 구원을 받[았다]"(마태복음 9:22)



뉴칼레도니아에서는 충실한 회원들이
주님의 사업에 헌신함에 따라 교회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32쪽의 “빛의 섬들”
참조